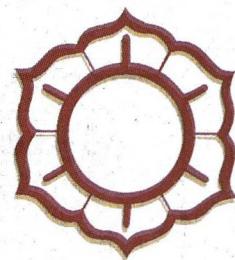


불교총지종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음마니반메
훔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
교화를 실천하는 재가종단입니다.



총지종보

2005년
3월 2일
수요일
제65호

이 달의 종조법설
복유할수록 더욱 은연하고 보시해야 하며 지위가 높을수록 겸손해야 할 것이며, 실천함에 있어 남의 허물을 보지 말아야 하며, 선을 행할 때도 높은 자세는 아니되며 실(實)다워도 허(虛)한 것 같아 해야하며, 있어도 없는 것 같아 해야하며 알아도 모르는 것 같아 해야 하느라.

발행인 : 우승 편집인 : 김옹주 인쇄인 : 김준배

www.chongji.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사항을 준수한다. 구독신청 : (02)552-1081

“즉신성불의 정통밀교 중흥”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 탄신법회

총지종(통리원장 우승)은 지난 1월 29일 서울 총지사를 비롯하여 전국사원에서 전국 스승과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제98주기 총지종 창종주 원정 대성사의 탄신법회를 봉행하였다.

이번 탄신법회는 개식사, 고유, 봉행사, 탄신축가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올해부터 종조 원정 대성사 탄신일을 종단 경축일로 제정하여 전국사원에서 섭대하게 봉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원정기념관’을 개관하여 원정기념관에서 탄신법회를 봉행하여 그 의미가 크다.

이날 총지종 효강 종령예하는 고유문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항상 수행하는 자세로 살아감이 불자자의 도리요, 이 땅에 윤원대도, 즉신성불의 정법밀교를 뿌리내리시어 법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선사하신 원정 대성사님께 정신으로 세계속에 우뚝 선 총지종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용맹 정진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승 통리원장은 봉행사에서 “좀 더 일찍이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어야 하는데 이제 이런 법회를 봉행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밀암국토와 정통밀교 총지종을 창종하여 종생구제의 대원을 이룩하신 원정 대성사님의 뜻을 살리고, 종단은 창종 당시의 대원을 다시 되새기며 종조님의 교상과 사상 연구에 매진하여 종조님께서 제창하신 제생의세의 정신으로 세계속에 우뚝 선 총지종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용맹

정진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회가 끝난 후 효강 종령예하는 고유문을 통해 “이 땅에 윤원대도, 즉신성불의 정법밀교를 뿌리내리시어 법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선사하신 원정 기념관에 전시된 원정 대성사의 유품과



총지종 효강예께서 “종단발전을 위해 전 승단과 교도가 용맹정진할 것”을 다짐하는 고유문을 낭독하고 있다.

창종당시의 사진들을 관람하며 이 땅에 밀교를 흥포하신 원정 대성사의 뜻을 기리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한편 총지종은 창종주 원정대성사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여 원정 대성사의 유고집 발간, 각종 세미나, 창종 당시의 수행법 등 다양한 연구물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견수렴을 통한 종단운영”

효강 종령예하, 서울경인교구지회 간담회

총지종 최고 수장인 효강 종령예하는 지난 1월 29일 통리원 종령실에서 서울경인교구 신정회 간부보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종정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국가진호불사를 봉행함에 있어 우승 통리원장은 “이번 불사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풍물한 나라가 될 것을 염원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국가의 안정과 유지에 이바지할 수도, 그것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불자들이 앞장서서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으로 나라를 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는 길이며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한 구성체로서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는 길이며 그리하여 이 땅에 극락정토를 건설하는 주춧돌이 될 것인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총지종은 이번 상반기 49일 불공기간에 자녀장례기와 경제적 발전을 서원하는 불공을 올립으로써 진언수행자로서 자성불을 밝히기 위해 용맹정진한다.

이에 효강 종령예하는 “앞으로 종단의 사법과 교법을 관찰함에 있어 교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은 우승 통리원장과 각 부장들과 시행방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장엄한 도량, 엄격한 계행으로 청정한 수행공간을 마련하여 교도들이 신명나는 신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의 유휴공간을 명상체험과 선센터의 활용방안,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교도관리, 방학동안 사원에서 컴퓨터, 영어교실 마련 등 자성학교의 활성화, 공식불공시간 전불가를 활용하는 방안, 승단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효강 종령예하는 “앞으로 종단의 사법과 교법을 관찰함에 있어 교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은 우승 통리원장과 각 부장들과 시행방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장엄한 도량, 엄격한 계행으로 청정한 수행공간을 마련하여 교도들이 신명나는 신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죽비소리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도끼가 입 속에 있거나
나쁜 말로 팔미암아
자기 몸을 스스로 베네

청찬할 이를 헐뜯거나
헐뜯을 이를 청찬하는
그와 같이 나쁜 사람은
결코 좋은 꿀 보지 못하리

『별역잡아함경』중에서

“나라의 안정과 개인 발전 협원”

상반기 49일 불공, 국가진호불사 입재



상반기 49일 불공 입재불사에서 총지종 교도들이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안녕과 평화를 발원하는 불공을 올리고 있다.

총지종은 지난 2월 19일 전국사원에서 모든 스승과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상반기 49일 불공과 국가진호불사 입재에 들어갔다. 이번 상반기 49일 불공은 4월 8일까지 봉행된다.

상반기 49일 불공기간에 국가진호불

사를 진행하게 된 것은 창종 초기부터 부처님의 은혜와 부모, 국가, 중생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4대보은사상을 강조해 왔으며 그 중에서도 진호국가불사는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49일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상반기 49일 불공

불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깨쳐서 부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깨침이 필요한 것은 깨침을 통해 우리는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인 존재의 실상을 모르는 우리는 나와 이웃, 나와 세계를 나누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에 욕심을 내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성내고 짜증을 냅니다. 그 결과는 대립과 갈등이요,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존재의 실다운 모습에 눈뜰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전환됩니다. 전환된 삶은 나와 이웃을 둘로 보지 않은 삶이요, 동체대비의 삶입니다. 나와 남, 나와 세계를 나누던 나를 깨뜨리는 순간이 깨침입니다. 이번 상반기 49일 불공 동안 모든 불자와 교도들이 각자 부처님의 깨침 소리를 듣고 해탈하기를 서원합니다.

일시 : 총기 34년 2월 19일 ~ 총기 34년 4월 8일
장소 : 불교 총지종 전사원
대상 : 모든 불자 및 총지종 교도

불교총지종
The Buddhism chongjijong

사설

상반기 49일 불공의 의미를 상기하자

지난 2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전국 사원에서 상반기 49일불공을 시행하고 있다.

상반기 49일불공은 자녀잘되기와 가정해탈을 발원하고, 밀교의 수호경전인『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근거하여 나라의 발전과 부국 강병을 서원하고 이 기간에는 국가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국가에 대한 원망심을 없애는 진호국가불공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상반기 49일불공은 진언행자들에게는 중요한 불공이며 그 의미가 크다. 즉 일정기간 불공을 통하여 정진함으로써 당체법문을 보게 되고, 당체법문을 통해 재앙이나 환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행자가 공력을 성취하려고 정진할 때 법을 주어서 자기의 허물과 결점을 없애도록 하며, 행자의 인격을 완성하고, 몸과 마음을 긍정감이 견고하게 하여 애착이 화하여 평등하게 한다. 이처럼 진언행자는 불공을 통해 진언의 묘미를 알 수 있고, 행자 자신의 성숙과 불공의 공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대가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물질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안락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있어 힘들고 어려운 불공을 회피하려는 경향과 더불어 종도들도 초창기에 업적했던 계행이 점점 퇴색되어 49일불공의 공력과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다.

초창기에 수행했던 행자들은 불공의 계율이 업적하여 월초불공과 49일 불공은 아무리 힘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행하였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하루라도 불공을 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49일 불공을 잡아서 정진을 해야만 했다. 이러한 발심과 지극정성이 있었기에 초창기에 수행했던 많은 행자들은 병고해탈과 가정해탈을 이를 수가 있었다.

요즘은 진언행자들은 해탈을 이루었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불공을 해도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해탈을 이를 수가 없다는 불평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

그러면 초창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해탈을 이루었는데 왜 지금은 그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일까? 그 해답은 명료하다.

현대는 물질문명이 발전하여 가만히 앉아서 리모콘 하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편안함과 안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안락한 삶속에서 부족함을 모르는 채 고행을 겪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초창기의 고행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행에는 계행과 고행이 따르는 법이다. 이 법을 지키지 않고 모든 것을 쉽게 구하고자하는 우리들의 마음자세 때문에 자신이 바라는 소원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을을 알아야 한다.

진언행자는 진언행자로서 진언의 묘미를 알아야 하고, 불공과 계율에 업적하고 철저해야 한다. 진언행자가 불공과 계율을 무시하면 행자로서 자격이 없으며, 자신의 해탈과 소원성취는 아무리 노력해도 성취되지 않는다.

행자는 자신의 자만심과 아집, 이상민을 믿고, 적당히 불공하고 계율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의 욕심만을 추구하고, 남의 허물만을 들추어 비방하는 일은 행자의 도리가 아니다. 진언행자는 행자로서 지극한 정성과 힘든 여건에도 불구하고 인욕하며 쉬임없는 용맹정진, 자신에게 철저하고 남에게는 따뜻하고 포근한 정과 배려하는 마음, 자신의 안락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동체대비의 정신, 세상의 모든 이품을 공유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간직하며 생활할 때 우리의 삶은 행복의 나날이요, 아름다운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 상반기 49일 불공이 임재되었다. 이번 상반기 49일 불공 기간에는 나태한 자신을 바로잡고, 초창기의 업적한 계율과 불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내가 지은 인에 의해 반드시 과보를 받는다는 인과법과 지극정성으로 불공하면 부처님의 공덕으로 반드시 해탈을 이를 수가 있음을 믿고 종전과 다른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불공에 임해야 한다.

“종무행정의 활성화로 교세확장”

총기33년 통리원, 법장원 결산감사



◆총기33년 사감위원회들이 총기33년 통리원, 법장원 결산감사에서 점검사항과 관련된 서류들을 살펴보고 있다.

총기33년 사감위원회(원장 법성)은 지난 2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동안 통리원, 법장원, 유지재단, 종단산하단체 등을 대상으로 총기33년(2004년)도 결산 정기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감사에서는 총기33년도 예산집행 등 회계처리 전반과 주요업무 추진의 적정성 여부, 사원신축공사, 사원수리비의 지출과 용역 및 물자구매계약의 적정성, 예산운영과 회계처리의 투명성, 인사처리 및 인재양성 계획, 승직자와 종무원의 복지실태와 향후 방향에 대한 평가 등 종무행정 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사감원장 법성 종사는 “올해에는 작년과 비교하여 자료정리 및 예산 집행면에서 향상되었으며 이번 감사는 종무행정의 활성화로 교세확장을 위한 방안과 각 부서별 활동에 대한 평가, 종무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종사자들을 격려하여 종단의 발전을 기하고자 한다.” 또한 “유지재단 및 통리원 예산은 종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본래 목표대로 법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감사하여 종단의 발전을 능동적으로 유도하는데 있을 뿐만 아니라 사부대중으로부터는 신심과 환희심을 불러일으켜서 종단의 위상을 제고하고 적발과 지도 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말하였다.

한편 사감위원회(법성, 지공, 지관, 법상인, 정법계)회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종단의 발전과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종단의 종무원 및 승직자들의 중지를 모아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두려움보다 호연지기로 역사창조”

종립 동해중학교 35회 졸업식



◆총기33년 우승 통리원장이 동해중학교 제35회 졸업식에서 불교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총기33년 종립학교인 동해중학교는 2월 17일 내외 귀빈 및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실에서 졸업생 320명에게 제35회 졸업장을 수여하였다.

졸업식은 개식사, 상장수여, 이사장 치사, 학교장 회교사, 통리원장 격려사, 재학생 송사, 졸업생 답사로 진행되었으며, 이사장은 강경중교장을 “눈은 저 푸른 하늘을 응시하고, 두 발은 대지를 굳게 딛고 서서 이 고동치는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가자”는 말! 또 “어제를 반성하고 오늘에 충실하여 내일을 힘차게 열어가자!” 비록 새로운 말이 아니고 평소에 하던 말입니다만 본교를 떠나는 졸업생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총기33년은 동해중학교의 불우한 학생과 학생들에게 불교적 신심을 고취시키고자 불교반 학생들에게 매년 일정액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고 말하였다.

또한 우승 통리원장은 축사를 통해 “시간의 걸음걸이에는 세가지가 있다. 미래는 주자하면서 다가오고, 현재는 화살같이 날아오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하고 있다. 이렇게 시간은 시위에 당겨진 화살처럼 쏟살같이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졸업하신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보다 앞으로 남은 미래의 시간들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미래의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고 화살의 시위처럼 현재 지금 바로 이순간을 헛되이 소비하지 말고 소중하고 보람된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올해 정년퇴임으로 마지막 회고사를 한 강경중교장은 “눈은 저 푸른 하늘을 응시하고, 두 발은 대지를 굳게 딛고 서서 이 고동치는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가자”는 말! 또 “어제를 반성하고 오늘에 충실하여 내일을 힘차게 열어가자!” 비록 새로운 말이 아니고 평소에 하던 말입니다만 본교를 떠나는 졸업생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총기33년은 동해중학교의 불우한 학생과 학생들에게 불교적 신심을 고취시키고자 불교반 학생들에게 매년 일정액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눠요

2005년 1월 28일부터 2005년 2월 25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기33년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의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자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기33년 사회복지재단

불교총기33년 사회복지재단
전화 552-1083, 3452-7485

개천사	김동근	20,000	기로원	불멸심	10,000	밀행사	보살일동	30,000	운천사	최병문	20,000	혜정사	조성기	10,000
개천사	무명씨	10,000	기로원	상지화	10,000	백월사	박삼순	10,000	자석사	우바이	50,000	혜정사	해보심	10,000
개천사	무명씨	5,000	덕화사	안의순	50,000	선립사	김정도	10,000	정각사	구정희	20,000	회음사	강순란	5,000
개천사	이승은	20,000	만보사	김정희	10,000	선립사	심지장	10,000	정각사	김정남	10,000	회음사	송영근	30,000
건화사	김경?	10,000	만보사	민순분	10,000	선립사	이병용	10,000	정각사	남숙자	20,000	명운	무명씨	10,000
건화사	수심정	10,000	만보사	배정암	10,000	선립사	이복선	10,000	정각사	박영숙	5,000	박희서	방원순	10,000
건화사	지 광	10,000	만보사	양관식	10,000	성화사	우담바라	100,000	정각사	박훈희	10,000	안화자	이화수	5,000
관성사	김홍조	10,000	만보사	이설강	5,000	수인사	김봉기	10,000	정각사	신옥필	5,000	최순전	최정원	10,000
관성사	인법계	10,000	밀인사	김덕배	10,000	수인사	한애숙	20,000	정각사	윤선자	10,000	혜정사	자성신	10,000
관성사	정인순	10,000	밀인사	신대식	5,000	실보사	송희준	10,000	정각사	이수임	10,000	최정원	황영숙	10,000
관성사	조정숙	10,000	밀인사	신도의	5,000	실보사	안경숙	5,000	정각사	정희연	20,000	허접수	정길오	5,000
관성사	해 정	10,000	밀인사	신동희	5,000	실보사	이순옥	5,000	정각사	오윤보	10,000	운천사	박보경	20,000
관성사	황성녀	10,000	밀인사	안옥진	30,000	실지사	박병성	10,000	총지사	지심행	10,000	혜정사	정길오	5,000
기로원	대 관	10,000	밀인사	이재호	10,000	실지사	이숙례	5,000	혜정사	수증원	20,000	혜정사	정길오	5,000
기로원	대자행	10,000	밀인사	이혜성	5,000	실지사	정경자	5,000	혜정사	자성신	10,000	혜정사	정길오	5,000
기로원	법장화	10,000	밀인사	정정희	5,000	운천사	박보경	20,000	혜정사	정길오	5,000	혜정사	정길오	5,000

항마염송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최근 총기33년에서는 공식불공 첫째 시간에 항마염송(소리를 내어 육자진언을 염송하는 것)을 전국사원별로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오는 4월 강공때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일부사원에서는 항마염송을 하고 있다.

항마염송을 하다보면 화를 잘 내는 사람도 화가 누그러지고 그와 같은 성격은 가라앉게 되어 운순한 성격과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 또한 항마염송이 고요하면 맥박이 고르고 맥박이 고르면 마음이 밝아지며 거울같은 마음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항마염송이 거칠고 맥박이 거칠면 심기가 거칠어지고 생명을 잊을 수도 있다.

항마염송은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쳐 병을 치유하고, 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하여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여러 자료에서 증명되고 있다.

또한 항마염송을 하다보면 불공시 줄음을 없애준다. 사람은 피곤하면 잠을 자게 마련이고, 잠을 자면 피곤이 풀린다. 피로란 가쁘고 노곤하다는 뜻으로 즉 숨이 가쁘고 혈맥이 느른하다는 것이다. 이는 달리기를 한 뒤에 혈떡이는 숨기쁨

특히 화를 가라앉히고 대자연의 진리로 이룩된 불법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염송하고 참회와 서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삼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염송은 인간의 육체에 기

를 순환시켜 마음을 안정되게 하

아제아제바라아제

설 명절을 보내며

설이나 추석 같은 우리 민족의 크고 오래된 명절 풍습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은 온 나라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즐기는 태양, 넓게는 온 우주 기운의 변화가 절기의 변화와 더불어 가는 것이 명절이므로, 이를 맞고 보내는 사람들의 태도나 문화는 자못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명절 풍습은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도 온 가족이 모이는 기본문화는 대체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명절만큼이나 뚜렷하게 가족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경전에 따르면, 부처님 재세 시에 파사의왕의 아들 유리왕이 카필라국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유리왕이 군사를 이끌고 오는 길로 나가 가지도 잎사귀도 없는 한 나무 밑에 앉아 계셨답니다. 이를 유리왕이 보고 “잎이나 가지나 무성한 나무를 두고 어찌하여 여기에 앉으셨나이까?” 하자, 부처님께서 “친족의 그늘은

라는 말이 있듯이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가족 관계를 두터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절 음식을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다 조금씩 역할을 주어 함께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풍성한 음식을 함께 만들면서 얘기를 나누면 마음이 너그려워져 자연 더스러운 말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 익혀 나온 음식을 죄고 어른께서 먼저 잡수시게 하고 그런 다음에 어린아이들로 차례가 돌아가게 하면 자연히 예절이 서게 됩니다. 주의 할 것은 음식을 지나치게 박하거나 지나치게 과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림이 넘치지 않은 경우에는 값싸게 할 수 있는 음식 하나라도 풍부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과음과 과식은 경계해야 합니다. 음식이 남아 널려져 있는 것은 복을 깎는 일입니다. 과음은 자칫 지나친 행동을 불러오기도 하여 다툼을 만들거나 예의를 흐트러뜨리는 나쁜 결과도 만들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덕담을 주로 해야 합니다. 지난 한해 각각의 가족들에게 성취가 있었다면 작은 것이라도 주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을 한해 열심히 노력해서 넘어 야 할 과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용기를 주는 말을 해주어야 하겠지요. 반면에 자기자랑이나 남 흥보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친 자기자랑은 부족함이 있는 다른 가족, 친척들을 의기소침하게하고

자격지심이나 반발심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남 흥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는 가족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놀이를 한 가지 정도는 다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놀이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젖먹이를 빼놓고는 남녀노노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놀이에서 역할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놀이 중에서 윷놀이가 알맞은 것 같습니다.

이밖에도 불교인으로서 이웃과 인사하고 나누는 일이라든가, 사원을 찾아 올해의 서원을 세우고 참배하는 것들을 하면 더더욱 좋지만 그럴 경우에도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저지를 잘 살펴가면서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불교인은 어느 종교인, 어느 가족구성원보다도 너그럽고 이해심 많은 사람인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음식과 관계된 문화를 잘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명절은 아직 제사문화가 살아 있습니다. 제사는 형식적인 절차도 중요하지만 제사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과정이 중요한 듯합니다. 식구

“
자기 자랑이나 남 흥보기를
하지 말고 남에게 용기주는 말
불교인은 너그럽고 이해심
많은 사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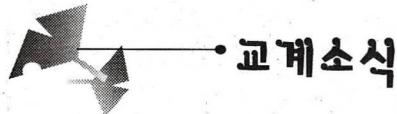
시원 하도다, 석가 종족은 부처를 낳았다. 석가족은 모두 나의 가지고 일이라. 그러므로 나는 이 나무 밑에 앉았노라.”고 말씀하시어 전쟁을 막으셨다는 일화가 전해옵니다.

명절이 되어 흘어진 가족이 모일 때가 되면 ‘나는 친족의 그늘이 서늘하다고 느끼며, 나 스스로 가족에게 서늘한 그늘이 되기 위해 해쓰고 있는가?’ 하고 자문해 보게 됩니다. 이번 설을 보내면서 명절에 가족, 친척이 다 같이 모였을 때에 더 나은 가족, 친척관계를 만들기 위해 해야 할 것과 가려야 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보편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것 세 가지만 여기 적어봅니다.

먼저, 음식과 관계된 문화를 잘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명절은 아직 제사문화가 살아 있습니다. 제사는 형식적인 절차도 중요하지만 제사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과정이 중요한 듯합니다. 식구

</



교계소식

금강산에 '불자수련원' 건립

현대아산 김운규 사장, 금강산 4대사찰 복원

현대아산이 금강산 신계사 인근에 불자관객들을 위한 '불자수련원' 건립을 추진한다.

현대아산 김운규 사장은 2월 21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해 "올 5월을 '불교의 달'로 정해 신계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신계사 불자수련원' 건립을 추진 중"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불자수련원은 8000여평 규모로 조성되며, 컨테이너로 만든 숙사 1동(600~800여명 수용 가능), 기도원 1동, 기념품점 1동, 사무실 1동, 식당 1동, 기타 부속동 1동 등으로 꾸며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 사장은 "아태축과도 이야기가 됐다"며 "조계종에서 조선불교연맹에 협조를 구해준다면 큰 힘



이 될 것"이라고 협조를 구했다.

이에 대해 법장 스님은 "26일 금강

불교복지 연구소설립이 발전의 관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10주년 평가



불교계에서 가장 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법인허가 10주년을 맞아 불교계 복지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80년대부터 대두된 불교복지단체 설립 필요성에 의해 구성돼 그동안 정부로부터의 시설 위탁과 봉사자 양성으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해 불교복지의 터전을 마련해왔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95년 구로종 합사회복지관 등 2곳이던 복지재단 산하시설이 2005년 현재 94개소에 이르며 불교계 위탁시설은 450여 곳이다. 이는 종교 복지의 성공적 모델로 꼽히는 천주교와도 규모면에서는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지원봉사자 양성 규모도 현재 복지재단 산하시설에만 1500여명이 투입돼 있고 매년 300명씩 새로운 봉사자가

산에서 열리는 회의 때 친서를 써 주겠다"며 지원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법장 스님은 "신계사 인근인 만큼 전통적인 분위기로 건립하며, 故 정주영 명예회장을 추모하는 기념관과 비석을 조성하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김 사장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불교가 앞장섰다"며 "신계사 복원도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또 "지난 신계사 대웅전 낙성식 때 총무원장 스님이 '모든 고통은 나에게 달라'고 말씀해줘 큰 힘이 됐다"

조계종 종단문장 '삼보륜' 특허청 등록 '조계종' 종명, 업무표장 독점사용



대한불교조계종



大韓佛教曹溪宗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대한불교 조계종은 최근 조계종 도용 종단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종명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 상표, 서비스표 및 업무표장의 특허청 등록이 완료되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5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종명의 독점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특허청에 출원한 '대한불교 조계종'과 '조계종'에 대한 상표, 서비스표의 등록과 '대한불교 조계종'의 업무표장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등록이 완료된 종단 문장은 '삼보륜'이다. 삼보륜은 불, 법, 승삼보와 계, 정, 혜 삼학을 상징하는 세

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실장 여연·사서실장 심경·사회부장 지원·신계사 도감제정 스님, 김운규 사장 부인 최옥자씨 등이 배석했다.

한편 현대아산은 내금강 관광확대를 통해 금강산 4대 사찰인 유점사, 장안사, 표훈사 등의 사찰복원사업도 추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배정방식 희망종교 반영

기독교 28개, 불교 3개학교

올해부터 시율시내 인문계 고교 학생들이 자신의 희망종교에 따라 학교를 배정 받을 수 있는 새제도 시행

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12일 공보관실에서 '종교를 가진 학생들이 희망하는 종교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올해는 급간을 3개로 줄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시행이 불교계 종교학교에 호재로 작용할지 악재가 될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서울시내 1백 97개 인문계고교 구성비(기독교 28개, 불교계 3개)를 고려하면 수치적으로 우세한 기독교계가 그만큼 많은 입학생을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불교계 종교학교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아합경 이야기

천한 사람 ②

지금 보다 더 못살던 옛날에도 그러지는 않았는데 부모, 형제간의 의리가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거의가 재산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요? 통계대로라면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성이 이렇게 폐말라 있다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고 형제, 남매간에 빙목과 질시가 성행합니다. 부자간에도, 동기간에도 재산을 놓고 법정 다툼까지 벌이는 서글픈 현상도 생기고 있습니다. 부모의 장례식장에서 유산 다툼 때문에 동기간에 친부랑이 도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사람도 천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성자가 아니면서 스스로 성자인 것처럼 떠드는 자는 천계와 인간계의 도적이다. 이와 같은 자는 실로 가장 천한 자이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천한 자를 성자가 아니면서 성자인 체 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진리를 깨치지 않았으면서도 진리를 깨쳤다고 와치는 사람을 하늘도

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 출생에 따라 성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사람은 그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 행위에 의해서 성자가 된다.

말하자면 천하고 천하지 않은 것은 날 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천한 사람도 되고 성자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부처님께서는 인류의 진정한 평등을 말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종이나 태어난 지역, 혹은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인간의 귀천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귀천이 결정된다는 것이지요.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인종차별이나 피부색에 의한 편견이 존재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이러한 모든 편견을 부정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에 따라 그 사람의 값이 매겨집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하던지 지금 현재의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해야지 태생이나 현재의 지위, 출신 지역, 출신학교 등에 의한 선입견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편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앗기카. 바

사람은 그 행위에 따라 천한 사람, 성자가 된다

부처님의 법은 어둠속에서 불을 밝혀주는 등불

속이고 인간도 속이는 가장 천한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옛날도 지금과 같이 종교적 사기꾼이 많았나 봅니다. 지금 세상에도 성자인 체 하는 종교인이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불교는 그나마 덜한데 타 종교의 지도자들을 보면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신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떠들고 다닙니다. 한치 앞의 자기의 앞날도 모르면서 그렇게 떠들고 다닙니다. 그런데도 신도가 구름같이 물리는 것을 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아마 그런 천한 사람들을 보고 물리는 사람들도 같이 천하기 때문에 그런거나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신도들이 갖다 바친 돈으로 외국에 호화 별장도 사고 때로는 외회를 몰래 빼내다가 사회의 빙축을 사기도 합니다. 그런 거짓 성자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데 오늘도 끊임없이 그런 사기꾼들은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이고 지혜가 깨였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불교를 앞장서서 배척하고 있으니 천한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니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재가자들이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께 귀의할 때에 흔히 쓰던 말입니다. 그것을 경전에서는 하나님의 정형구로 이렇게 표현해 좋은 것입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마가다에서 많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도하셨습니다.

〈화령정사·법원장 연구원〉

불교방송 총지종 광고, 교리강좌 안내

천년의 잠을 깨고 우리 앞에 나타난 밀교!

법신대일여래 비로자나부처님의
무언의 설법을 통하여 마음의 비밀을 깨달아
즉신성불에 이르게 하는
정통밀교의 숭고한 가르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탁악세를 정화하고 무량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할 비밀의 문!
그 문의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통밀교 불교총지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고기간 및 시간 (9/14~3/4)
오전 10시 30분, 오후 5시 30분

※불교방송 강좌 안내

▷프로그램명 : 불교강좌

▷방송시간

오전 6시 5분~6시 25분

오후 9시 5분~9시 25분(재방)

▷강사 : 화령 정사

▷방송기간

총기 33년 10월 11일부터 6개월간

BBS FM
전국네트워크

서울 FM 101.9MHz
부산 FM 89.9MHz
광주 FM 89.7MHz
대구 FM 94.5MHz

청주 FM 96.7MHz
춘천 FM 100.1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인터뷰

우승 통리원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신명나고 즐거운 수행 공간 마련



우승 통리원장

▶ 어려운 시기에 통리원장으로 취임하여 그동안 여러 난제(難題)들을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종무행정의 정상화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지난 1년간의 업적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종단은 창종시부터 오랫동안 종지종의 정신적 자주로 계셨던 특정대종사님(이지난 2003년 5월에 열반하시고, 몇 개월간 종령의 공석으로 인하여 종정이 미비되어 오다가 동년 11월 수성대종사님을 종령으로 추대하였으나 수성대종사님도 건강이 악화되어 종정을 살펴보시지도 못하고 지난해 3월 열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종단 최고 어르신들의 잊어버린 열반으로 1년여 동안 종단의 정신적 공백기를 맞이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해 7월 효강 대종사님을 종령으로 추대하여 그동안 어수선했던 종정을 바로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효강 종령님은 내적으로 법장원장, 통리원장 등 주요요직을 두루 거치셨으며, 대외적으로 불교텔레비전 대표이사, 불교방송이나 등을 역임하시면서 종단을 반석위에 올려놓으셨고 뛰어난 수행력과 영도력을 겸비하신 분으로 저로서는 효강 종령님을 보시고 종무를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산적해 있던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지난 1년 동안 처음으로 통리원장을 수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승단 스승님과 종무원, 교도들의 도움으로 효강 종령님 추대후 종무행정을 정상화하고 몇 년 동안 연기되었던 보살 수명관정수계법회, 종조전인 '원정기념관' 개관, 일선사원 승직자 인사발령 등을 원만히 수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대원력과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하며 항상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 종단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교의 가장 큰 목적은 포교이며, 교회를 활성화하여 어렵고 힘든 삶속에서 고통받는 대중들이 종지종의 울타리 안에서 해탈을 이루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하는 것입니다.

종단도 포교의 활성화, 교회의 활성화를 위해 수행법과 포교방법의 개발, 사회복지의 활성화, 신명나는 신생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활성화를 위해 젊은 세대들에게 대한 포교방법으로 올해부터 5세대제도를 공공서원으로 표방하며 가족들에 대한 포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동승하며 수행법의 개발과 불단장업, 의식과 의궤의 변화, 도제양성 등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초에 승단총회를 개최하여 불단장업, 전국사원 만디리봉안, 공식불공시간 항마연송, 오체투지, 불사의식의 변화에 대해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로 올 한해동안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종령님의 공석으로 연기되었던 광주 법황사, 전주 흥국사, 서울 관성사, 대전 백월사, 의 헌공사를 봉행하고 몇 년동안 시행되지 않았던 일선사원의 사무지도감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국가나 기업체 및 모든 기관들은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단도 인재의 필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도제양성을 위해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재의 중요성을 아울러 강조해도 두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두 형제를 장관과 국회의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일제시대에 부자였으며 모든 재산을 자녀들의 교육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일본 동경대학을 졸업하고 고국으로 돌아와 장관과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생가에 빈 공터만 남아있지만 훌륭한 자녀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수많은 재산보다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불교계에서도 많은 고승대덕스님과 대만 불교선사 선운스님의 경우에서 보듯이 한 분의 훌륭한 사람이 수많은 종생들을

제도하고 종단의 발전적인 견인차를 한 것으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단도 매달 사원현상금의 일부를 도제양성비로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승직자 및 종무원, 교도자녀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여 양성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법장원의 연구원과 종무원을 추가로 모집하고, 교육, 행정, 복지, 포교 등 각 분야의 젊은 인재들을 대폭적으로 양성시킬 계획입니다.

▶ 최근 각 사원의 교도들은 노보살들의 복지차원에서 종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양로원이나 요양원설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의 활성화는 효강 종령님께서도大力하고 계시고 종단도 몇 년전부터 이러한 제안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여 양로원이나 요양원 건립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도 또한 통리원장 취임 후 이러한 안건들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인력구성 및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잠시 동안 소강상태에 있었지만 앞으로 전문인력을 구성하여 노인전문요양원건립과 현재 유숙공간으로 남아있는 경주의 승천사, 밀양의 일상사 등에 사회복지시설 활용과 일선사원에서도 유숙공간을 명상, 요가센터 등을 만들어 지역문화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 현재 종지종의 교도수는 점점 더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젊은 교도들을 포교해야하는 과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젊은 교도들을 포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포교를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수행법은 앉아 있는 시간이 많고, 법회가 지루하다는 평을 받아 젊은 자녀들을 대하고 오면 힘들어 한다는 내용을 듣고 이에 대한 수정안으로 법장원에 의식과 의궤의 개편에 대해 연구 과제를 제시해놓은 상태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은 조직자체가 생기가 있고 활력이 넘칩니다. 그래서 저도 이들에

대한 포교의 활성화방안을 여러 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포교를 위한 전담인원을 편성하여 청년회조직 활성화와 청년회의 밤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만들어 청년들이 참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족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족법회 개최, 주5일 근무제의 실시로 자선일을 지키지 못하는 교도들을 위해 주중법회마련, 청년들을 위한 대중법회시간 편성 등 다양한 내용들을 연구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시행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산업이 발전하고 부모들의 학구열이 높아짐에 따라 교도와 보살들의 의식수준과 교육수준은 상승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단은 승직자에 대한 교육체계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직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승직자에 대한 재교육과 새로 입문한 승직자에 대한 교육의 체계성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단장임과 수행법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우선 각 교구별로 교도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여 수정보와 원점을 마련하고, 법장원의 세부적인 연구와 계획, 통리원의 보조로 올 한해동안 분명히 시행할 것입니다.

모든 승단과 보살님들께 종단의 발전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지 당부드립니다.

▶ 매년마다 청소년수련법회를 마치고 나면 자성학교의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과 청소년에 대한 포교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곤 합니다. 자성학교와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서 말했듯이 훌륭한 승층 한 사람 한 사람이 수만명의 중생들을 구제한다고 합니다. 그렇듯 스승의 자질향상은 당연한 일이며, 스승의 자질에 따라 종단의 운명도 좌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방안으로 본산에 설립된 종지불교대학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종지불교대학이 활성화되면 기존 승층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과 신규스승에 대한 교육체계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승직자 자질향상을 위해 전문연구팀을 구성하여 교육의 체계화와 전문성을 기하고 일반교도들에게도 교리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올해초 승단총회에서는 급변하는 세대의 물결에 적응하기 위해 불단장업, 전국사원 만디리봉안, 의식과 의궤의 개편에 대한 안건에 대해 승단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안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실행하느냐 하는 것이라 봅니다. 이러한 일을 실행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뿐만 아니라 효강 종령님께서도 평상시에 종조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생의세(濟生醫世)'의 방편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적합한 교회방법을 마련하여야 한

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단은 이제 30여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30여년동안 수행과 포교면에서 별 다른 변화없이 초기의 상태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사람도 30세가 되면 헬기왕성하게 변화를 이루하는데 우리도 이제 30년이란 세월에 걸맞는 수행법과 교회방법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대는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화된 시대의 흐름에 동승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단장임과 수행법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관에 대한 운영의 합리화와 종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외부감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함과 동시에 직원들에 대한 종교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남은 임기동안 종무행정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실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주에서 매우 활동하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다소 소홀한 점도 있고,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취임시에 천명했듯이 저의 모든 여력이 허락하는 동안까지 최선을 다해 종무를 수행할 생각이며, 종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의 임기가 남아 있지만 우선 효강 종령님을 모시고 통리원의 각 부부장과 국장, 종무원들이 나와 너의 분별을 버리고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당한 방법으로 종무를 이끌어갈 것이며, 신명나고 즐거운 수행공간 마련과 모든 교도와 불자들이 종지종에서 수행하여 해탈을 이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저 혼자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모든 승단과 교도들이 종책에 대해 비판과 비난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제안과 지지, 하나된 마음이 만들 어질 때 가능하리라 봅니다.

앞으로 사원의 전당건설신축, 포교활성화, 신개척자 개발, 수행법과 의식의 개편, 법규정비, 포교지와 경전 발간 등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을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하나씩 하나씩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오랜 시간동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성미 조선화 원장



여성美 한의원

▶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 경 병 :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간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 자궁근증, 질염, 냉증, 대하증, 봉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신 병 : 불임, 임신오자(임덧), 임신중독증 등...
- 산 후 병 :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 가능성작업 요법(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비만 클리닉

- 여성 : 자궁 다이어트
- 남성 : 복부 다이어트

▶ 가족 클리닉 - 보양, 수험생 등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주 말 : 오전 9시30분~오후 4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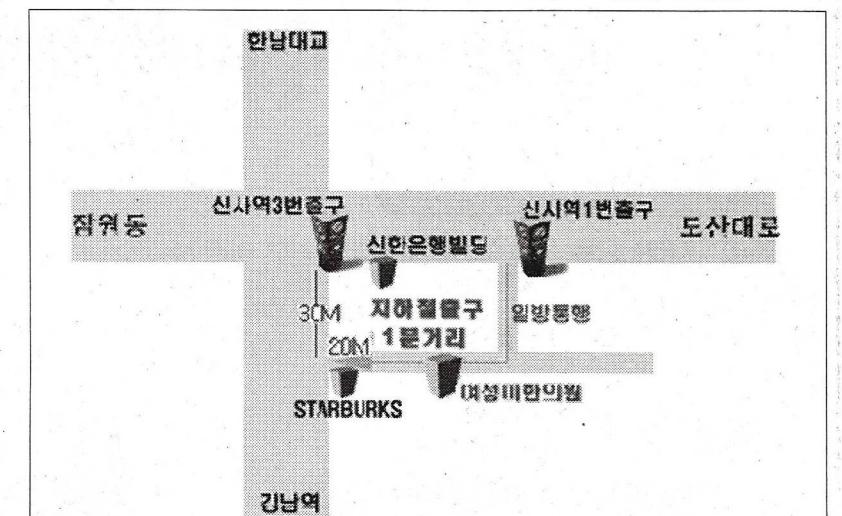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독아TV “전문의 상담”



생활액분석기



자동필강진단기

조음파

온열전기침

저주파치료기

좌훈육기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www.women119.co.kr

전화상담 02)545-0072

Fax 02)545-2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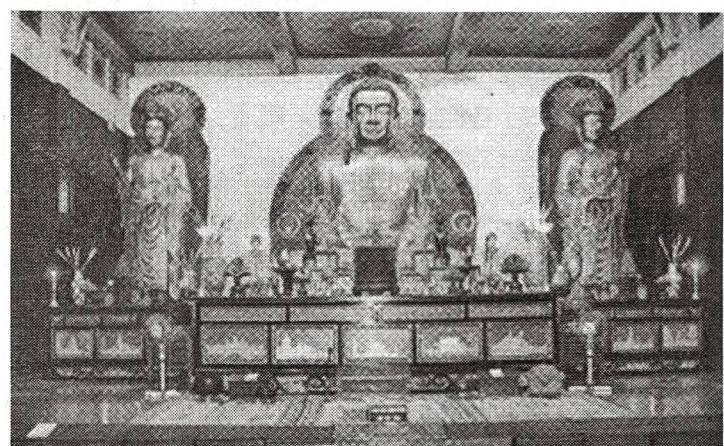
세계속의 불교

Buddhism in Vietnam (베트남의 불교)

인터넷을 통해 세계속의 불교가 어떻게 성장, 발전하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편집자 주)

베트남에서 널리 알려진 불교형태는 선과 요도의 조화이다. 요도의 철학과 수행법이 일반대중에게 유행하는 것과 달리 명상을 강조한 선체험은 대부분 스님과 수행승들 사이에서 행해지고 있다.

호치민시에서 300km에 위치한 베트남 다락시



의 남쪽에 위치한 트루치 남 사원은 많은 스님들과 수행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통치 이후 온화한 기후와 배경으로 유명한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베트남에서 많은 스님과 수행자들이 수행하는 가장 큰 선센터중의 하나이며,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 또한 그 지역에서 뿐만아니라 베트남과 해외에서도 명성을 공부하는 선센터로 유명하다.

그 센터에는 몇십년동안 명상수행으로 유명하

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틱 타한투가 거주하며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분의 강의와 수행법은 세계적으로 명상에 대한 많은 다양한 형태를 발전시키고, 실행되고 있어 유행하고 있다.

남쪽에는 몇 개의 소승불교 사원이 있으며, 윤리적인 면을 강조한 크메르 사람들은 신봉되고 있다.

베트남 사람들은 소승불교 스님들은 세이곤의 반한 불교 대학에서 대승불교 스님들과 함께 공부한다.

베트남의 남부지역에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를 성공적으로 결합하여 형성된 베트남 특유의 불교형태가 존재한다. 기본적인 철학은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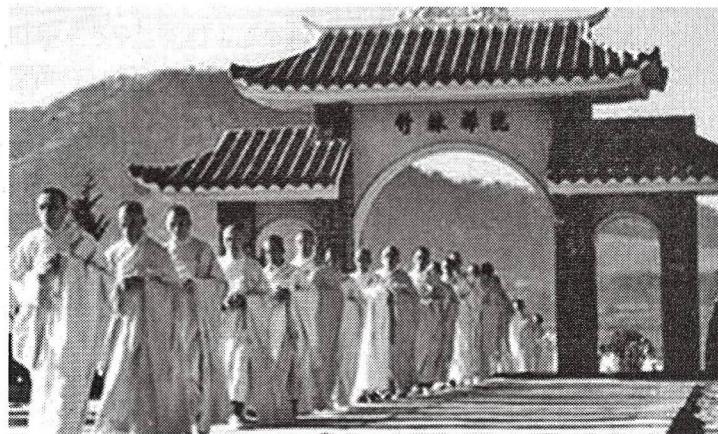
승불교로 삽고, 스님들의 계행은 엄격하며, 매일 매일 전통적인 탁발을 하며 생활한다. 이러한 베트남의 전통적인 불교교단의 참시자는 민당크왕이다.

식민통치동안 많은 불교교단이 발전하였고, 현재까지 대부분은 외국의 베트남인들 사이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불교와 개신교의 결합형태인 '호아 호이' 교단과 카톨릭교회와 결합되어 예언과 의식을 강조한 '카오 다이' 교단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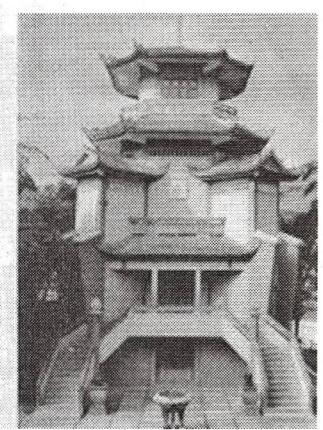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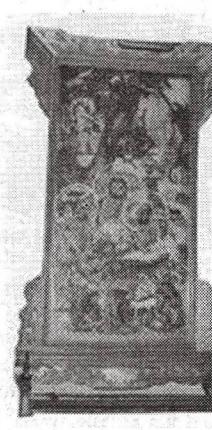
베트남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불교국가이다. 스님들은 공동체를 형성하여 발전하고, 사원들은 학교와 고아원, 병원, 장애인을 위한 가정을 운영하고 있다. 레이 사람들은 종교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베트남불교는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며 지난 50년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대부분의 스님들은 어린나이에 출가하고, 사원 안에서 체계가 잘 정비된 교육을 받는다. 많은 스님들은 대학에 진학하여 공부를 한 후 선생과 의사, 변호사, 신문기자의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며, 영어와 중국어에도 능통하다.

베트남의 주된 불교행사는 부처님 오신날인 벼사과 유팔마나인 불린이 있다. 베트남인들은 음력 15일에는 사원을 방문하며, 각 사원에서는 대승보살의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아 딘 팟 투'라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기구가 구성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남자와 여자와의 차별이 있듯이 비구승(남자스님)과 비구니승(여자스님) 사이에는 큰 차별이 존재한다. 비구승은 선생님이란 뜻의 '태이', 비구니승은 자매란 뜻의 '슈코'라고 부른다.

모든 승가는 세속의 가족을 떠나고 부처님의 가족에 결합한다는 의미로 '티츠'라고 불리운다.

불자들은 서로 인사를 할 때 부처님을 예경한다는 뜻으로 '모 팟'이라 부르며 가슴 부위 손바닥을 서로 합친 합장을 한다.

또 다른 방법은 '아미타하 부처' 라를 암송하며 인사를 한다.

(<http://www.buddhanet.net/e-learning/buddhistworld/vietnam-txt.htm> 번역 : 김용주/총지종보사)

사람들은 '피안'이라는 불교의식에 참가하고, 그곳에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불명을 받는다. 그들이 사원을 방문할 때는 자신이 독실한 불자임을 나타내기 위해 평상복위에 전통적인 회색 전통복을 입는다.

또한 우리나라의 스카웃과 같은 제도이며, 공식적인 영어로는 베트남 불교 청년회라는 '지

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서로 '혼인서약'을 꼽았으며, 이어 '주례사' 22.5%(113명), '양가 부모님께인사' 20.1%(100명) 등의 차례였다. 또 사라져야 할 결혼식 절차는 '폐백'이라는 용답이 40.8%(204명)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입장하는 것'과 '예식 뒤 식사도 각각 14.8%(74명), 12.5%(6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수 하이페밀리 사무총장은 "결혼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 사이의 '언약'이라는 점에서 많은 기혼자들이 혼인서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고, 신랑 중심의 결혼식 행사인 폐백은 신부 가족에게 소외감과 허탈감을 안겨주는 등 양성평등에 합당하지 않은 절차이기 때문에 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적당한 축의금 액수를 묻는 질문에는 42.6%가 '3만원이하'라고 대답했으며, '5만원 이하'도 26.6%로 나타났다.

美동포, 한국 국적 포기 급증

재미동포들이 병역법 등을 이유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6일 주미대사관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국적 포기는 워싱턴 총 영사관이 340건, 로스엔젤레스 총 영사관 1,874 건으로 각각 전년대비 110건(48%), 791건(73%) 증가했다. 뉴욕이나 시카고 등 다른 지역도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들 지역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 관계자는 "지난해 국적 포기가 크게 증가했다"며 "영향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최근 동포 2세 미 시민권자들이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다 정착대상에 포함해 입대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병역법은 미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지닌 이중 국적자는 만 18세가 되기 전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문제가 해결 되기 전까지는 국적 이탈이 안 되어 국내장기 체류시 징집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주한인회 총연합회(회장 최병근) 등 동포사회는 정부를 상대로 재외국민에 대한 불합리한 병역 법규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한나라당 홍종표의원이 국회에 재외동포병역법 개정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다.

정보 다이제스트

자연재해 40년새 50배로

지난 40년새 자연재해가 5배 급증 했으며, 이는 인류의 주거 형태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니얼 세어위츠 애리조나 주립대 교수는 2일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1960년 대 초 연간 100건 정도였던 자연재해가 2000년 초 연간 50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면서 "이는 지진, 쓰나미 같은 자연현상의 빈도나 위험이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위험지역까지 거주지를 넓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부유층은 건축기술의 도움으로, 가난한 계층은 살 땅을 찾아 사막 또는 범람원(汛濫原), 지진 위험이 높은 단층지대처럼 거주위험 지역에 도시를 형성하는 바람에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해졌다는 것이다. 문제는 선진국과 달리 가난한 국가들이 재해에 거의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캘리포니아 공대(칼텍)케리 시예 박사는 "리히터규모 7.5의 지진이 미국LA와 비슷한 규모의 이런 테헤란을 각각 강타한다고 가정하면 미국에서 사망자는 5만 명에 그치지만 이란에서는 1백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란에는 내진설계 건물이 거의 없어 지진이 발생할 경우 건물에 깔려 숨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진해일(쓰나미)에 대한 일본의 일사불란한 대비책과 인도양 국가들의 무대책도 대조된다.

사망자 10명중 1명꼴 폐암 당뇨 자살이 원인

식생활이 서구식으로 바뀌면서 당뇨병에 의한 사망률이 급격히 늘어난 반면 위암으로 숨질 확률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통계청의 '사망원인 생명표'에 따르면 2002년 기준으로 한국인(남녀를 포함한 통계로 45세 기준)이 암으로 폐암, 당뇨

병, 자살로 사망할 확률은 합쳐서 10.44%로 7년 전인 1995년의 7.22%에 비해 3.22%포인트 높아졌다. 남자의 경우 앞으로 폐암으로 숨질 확률은 7.04%로 95년의 5.17%에 비해 올라갔고 여자는 1.70%에서 2.34%로 상승했다. 당뇨병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가 3.15%에서 4.18%, 여자는 3.38%에서 4.73%로 높아졌다. 자살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가 2.03%로 95년의 0.89%에 비해 높아졌고 여자는 0.41%에서 1.04%로 올랐다. 자살로 사망할 확률이 두 배 이상으로 높아진 것이다. 교통사고 사망률의 경우 남성은 3.24%에서 2.07%, 여성은 1.81%에서 1.10%로 내렸다.

직장인 51%, "청년실업은 정치인 탓"

구직자와 직장인, 대학생 2명중 1명 가랑은 청년실업의 책임이 정치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취업포털 커리어에 따르면 최근 구직자와 직장인, 대학생 등 2,15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청년실업의 책임 소재에 대해 51.5%가 '정부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을 꼽았다. 이어 '비취업자 본인' 26.0%, '경영자, 기업 등 경제인' 14.4%, '학교 등 교육기관' 5.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신분별로 보면 청년실업의 책임을 정치인에게 돌린 비율은 학생 54.5%, 직장인 53.7%, 구직자 49.1% 등의 순위에 비해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자는 구직자 28.0%, 직장인 24.4%, 학생 22.9% 등의 순으로 높았다.

저녁 교대 근무자, 위장질환 위험 높다.

오후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근무자들은 가슴앓이, 위궤양, 변비 등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연구진이 30일 밝혔다. 이 연구를 주도한 미국 국가직업안전보건연구소의 클레이어 C. 카루소 박사는 저녁 근무자들은 저녁 시간에 더 많이 근무하고 덜 규칙적인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한 잠을 잘 잘 기회가 줄어들거나 일의 시간대에 따른 특징들로 인해 수면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잠을 잘 자는 것이 위장

증세들과 다른 증세들을 줄여들게 한다"고 밝혔다. 불규칙한 근무시간대는 식사와 소화를 조절하는 인체 내부의 시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카루소는 경고했다. 저녁 근무는 또 근무자와 친구들과 가족을 격리시켜 스트레스를 일으키며 그 결과 위장질병들이 생긴다고 그는 밝혔다.

운석 1년에 7만8천t 떨어져

수많은 운석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구로 떨어진다. 밤에는 빛을 내며 떨어지기 때문에 볼 수 있지만 낮에는 햇빛이 밝아 떨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을 뿐이다.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국지연구소 홍성민 박사는 프랑스, 이탈리아 과학자들과 함께 한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지구로 떨어지는 운석이 지금도 연평균 78,000t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연구팀이 지구로 떨어지는 운석의 양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한 재료는 그린란드 빙하 3.028m를 시추해 파吁린 빙하 샘플. 빙하는 '냉동 타임캡슐'이라고 할 정도로 수십만년의 기후 변화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담고 있다. 매년 미세한 먼지들이 나무 나이테처럼 빙하에 쌓여 있다. 연구팀은 128,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형성된 빙하 샘플에 포함된 운석에서 나오는 미세한 백금과 이리듐 입자와의 양을 분석했다. 그런 뒤 지구 면적을 감안해 지구로 떨어지는 운석의 연평균 양을 계산했다. 운석에 섞인 백금과 이리듐은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하면서 극히 미세한 먼지로 분해된 뒤 남·북극 지역에 집중적으로 떨어진다.

사라져야 할 결혼식 순서 '폐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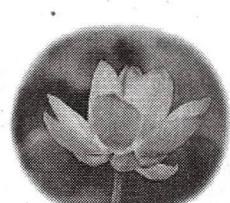
'결혼식의 백미는 혼인서약, 폐백은 사라져야'는 가정문화 시민단체인 하이페밀리는 서울에 사는 기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결혼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서는 혼인서약이고, 없어야 할 순서는 폐백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30.2%인 151명이 결혼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 재단은 부처님의 자비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설립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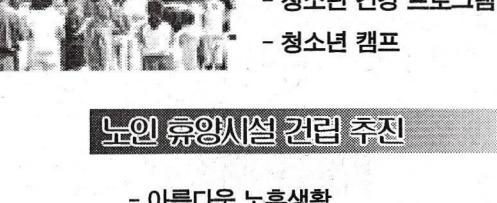
지역복지사업

- 지역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지역내 소년·소녀 가장 후원 결연사업
- 지역내 독거 노인 후원 결연사업
- 생활보호 대상자 후원 사업



청소년복지사업

-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
- 청소년 문제 연구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
-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캠프



주요사업내용

노인복지사업

- 역삼 노인복지센터 운영
- 주간보호 사업
- 만성질환과 기능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낮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양가족과 노인들이 경제, 신체,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
- 재가복지 사업
- 지역의 생활보호 및 저소득 노인을 발굴하고 경제, 정서적 서비스를 통해 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업
- 은빛축제 :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마당
-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 55세 이상 고령자 취업알선

제원봉사 및 후원회 사업



- 자원봉사자 상담 및 교육
- 자원봉사 지원 및 운영
- 후원자 개발 및 관리
- 자원봉사 교실 운영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람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은 재단의 사회복지 사업에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회원

일반회원 - 월 5천원(1구좌) 이상
단체회원 - 단체명으로 월 5만원 이상
특별회원 - 50만원 이상 후원

후원금 납입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 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자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지동이체를 신청 하시면 됩니다.
 3. 자로 응답은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종경소리

행복이 자리하는 곳은

행복한 삶이란 나 이외의 것들에게
따스한 눈길을 보내는 것입니다.
시든 한 송이 꽃에도 눈길을 보낼 수 있을 때
걸인의 차가운 손을 외면하지 않을 때
자신이 잊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비로소 행복은 시작됩니다.
작은 행복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 이용범/소설가

열심히 하다보면

목장 주인이 되기를 꿈꾸는 청년이 소를
한 마리 사았습니다.
그때 외양간 앞을 지나가는 노인에게 청년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소가 수십, 수백 마리로 늘어나면 이 품
은 외양간으로 어립도 없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보게, 강을 건너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배가 필요하지요."

"자네는 지금 배도 없는데 어찌 강을 건너려고
하는가?"
할 일을 먼저 하게. 자네가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지금 물음에 대한 답은 자연히 얻어질 것이다."

- 박민호/아동문학가

할머니의 눈물

장거사의 딸 설이는 일찍이 마조스님께 가르침
을 받았습니다.

그 후 가정을 이루어 다복한 노파가 되었건만
갑자기 사랑하는 손녀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가 애통해 하며 목놓아 우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도(道)를 통했다는 사람도 별 수 없군. 우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

할머니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슬플 때 우는 것은 자연스런 일인데.... 무엇이
달라져야 한단 말인가. 일부러 구분 짓지 마시게.
분별심이 다 망상(妄想)이라네.'

- 맹린자/수필가

내부의 적을 제거하라

외부의 적은 영원하지 않다.

적에게 존경심을 보여주면

금세 친구가 된다.

하지만 내면의 적은 영원하다.

내면의 적과는 타협할 수 없다.

이 적은 마음속에

동지를 틀고 산다.

때문에 이 모든 나쁜 생각들과

당당히 맞서서

그것들을 제어해야 한다.

- 달라이라마(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중에서

월정대성사와 함께하는

VISUAL 밀교

~반야심경편 제 38화~

글.그림/정수일

정수일홈피 <http://home.paran.com/octagonp>

이달의 명상

아상이 없어진 자리가 해탈의 자리

『금강경』에 의하면 “내가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데, 어떤 상(相)을 갖지 말고 하라. 상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면 보살이라고 할 수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수행의 완성은 먼저 아상(我相)을 없앨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상은 자신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 이로 인해 업을 짓고 해탈과는 반대되는 길을 재촉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금강경』에서 아상 이외에 인상 · 중생상 · 수자상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아상만 없어진다면 세 가지 상은 곧 동시에 소멸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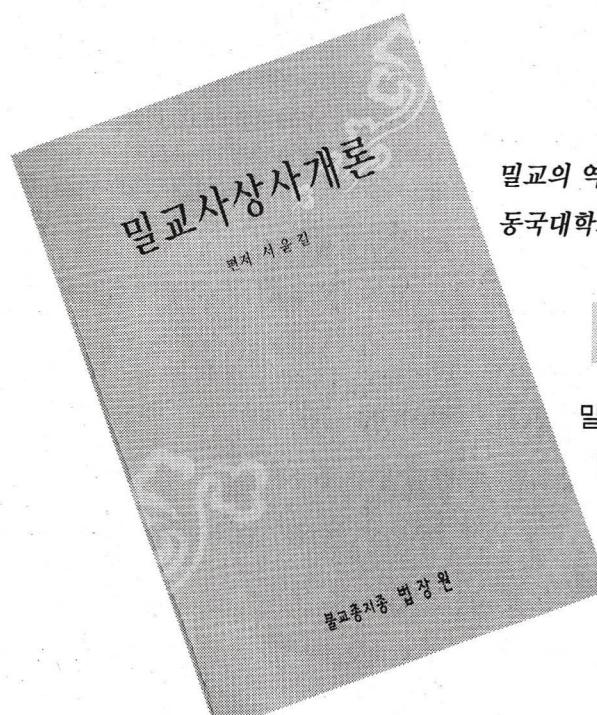
이 아상이 없어진 그 자리는 바로 해탈의 경지인 것입니다. ‘나’라는 그것이 없어진 바로 그 자리에 타인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저절로 생겨나며, 그 자비가 피어난 곳에 너와 내가 없는 불이(不二)라는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해탈의 경지에 머물지 않고 이타(利他) 수행을 겸한 그 자리가 불상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 경전에서는 해탈에 이르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아상을 들고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해인(海印)삼매에 의해서 비로자나부처님이 세계가 현성하고 그것을 화엄 삼매에 의해서 현실의 사람들에게 보이며 구제하는 사상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편집자 주>

『밀교사상사개론』



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윤길 교수 외 7명의 밀교학자가 공동 집필...

주요내용

밀교란 무엇인가/밀교의 기원과 형성/밀교의 성립과 전개/
밀교의 사상과 그 교학적 배경/밀교의 수행과 실천/한국의 밀교/
부록: 한국현대밀교와 원정대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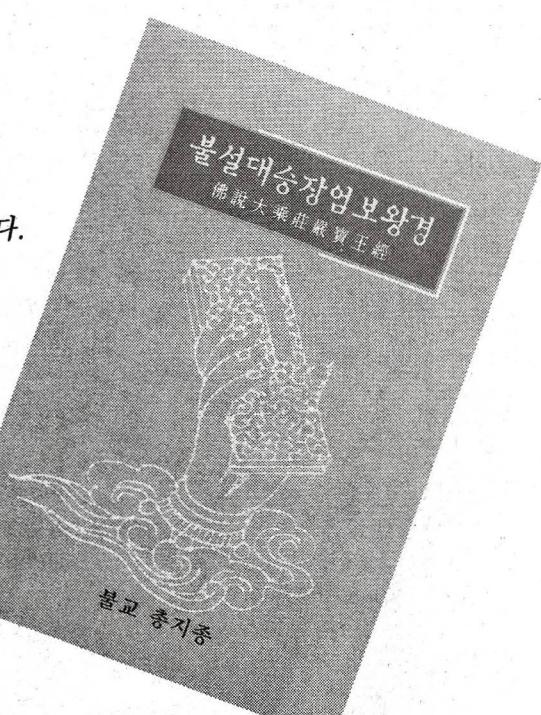
국판/437페이지/정가 15,000원

『불설 대승장엄보왕경』
(佛說大乘莊嚴寶王經)

육자대명다라니 『음마니반메훔』의 유래와 공덕을 설한 경전...
이 경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정들이 오직 이 경의 이름만 생각하여도
이러한 이익과 인리를 얻는데
만약 누군가 이 경을 듣고 베껴쓰거나 수지하거나
독송하거나 공양하고 공경하면
그 사람은 항상 안락을 얻을 것이니라.”
---본문 중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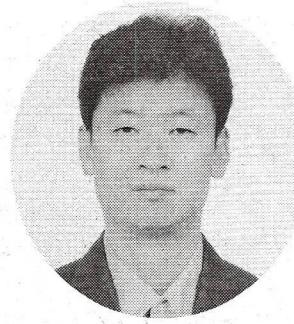
변형 국판/130페이지/정가 7,000원



도서출판 불교 총지종

Tel:(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총지칼럼



〈김종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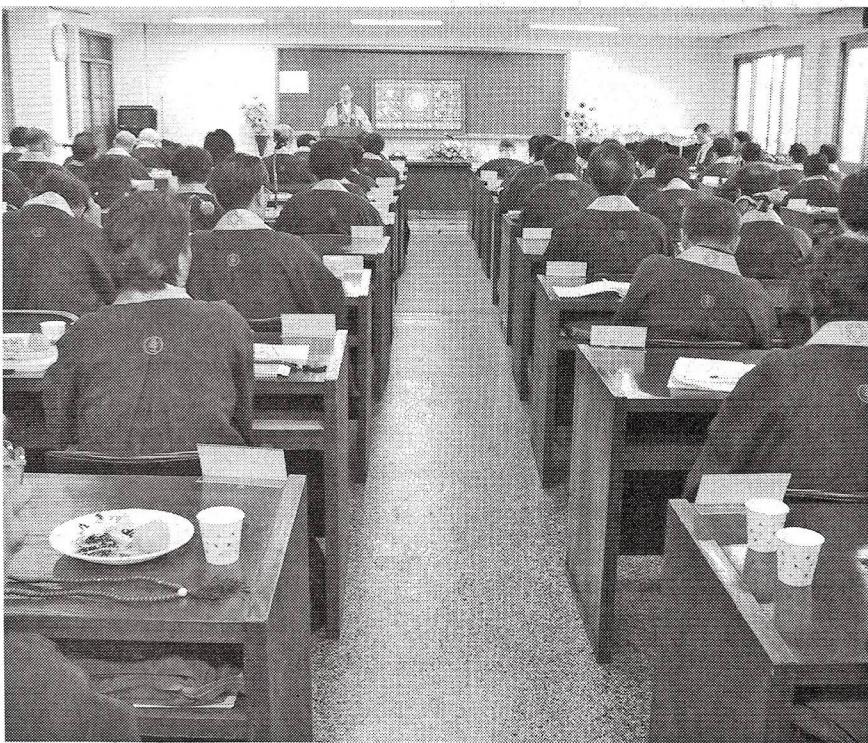
▲(현) 총지종 법장원 연구원
▲(현) 고려대학교 BK21 연구교수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불교 연 구로 철학 석사 (1994)
▲스토니布鲁 대학교 불교 연구로 철학 박사 (2002)

자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 즉 깨달음을 통한 믿음이다. 그래서 현대의 많은 학자들은 불교를 이성적 종교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처럼 불교는 이성적 자각에 기초한 종교이기 때문에 불교인들은 그 어떤 종교인들보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불교인들은 언제나 열심히 공부해왔다. 팔만대장경에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논서들이 바로 그 증거이다.

한국불교는 선불교가 지배해 온 탓에 문자를 통한 공부보다 참선 수행이 더 강조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결코 경론을 통한 공부를 가벼이 할 수는 없다. 경론을 통한 공부가 밀반점되지 않은 참선은 수행자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비우게 할 때이다.

경론을 통한 공부는 일반 불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의 불교 신도들은 과거와 달리 충분한 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다. 모두들 한글을 깨쳤음은 물론이고, 상당수는 고등교육까지 받은 이들이다. 과거처럼 경론의 지식이 승려



불교는 진리에 대한 자각, 깨달음을 통한 믿음

교육과 학습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포교할 수 없다

스승들과 교도들의 교육과 학습으로 교제확장



들에게만 전수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과거에는 일반 신도들은 대개가 문맹일 뿐 아니라 학습할 시간도 없었지만, 오늘날은 학습 능력과 시간 모두를 갖추고 있다.

오늘날 불교의 교세가 외래 종교에 비해 크게 위축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도들에게 교리 공부를 시키지 못한 것이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불교 승직자들은 불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 우수한 철학적 교리를 가지고 학이라 일컬어지는 학교를 세워서 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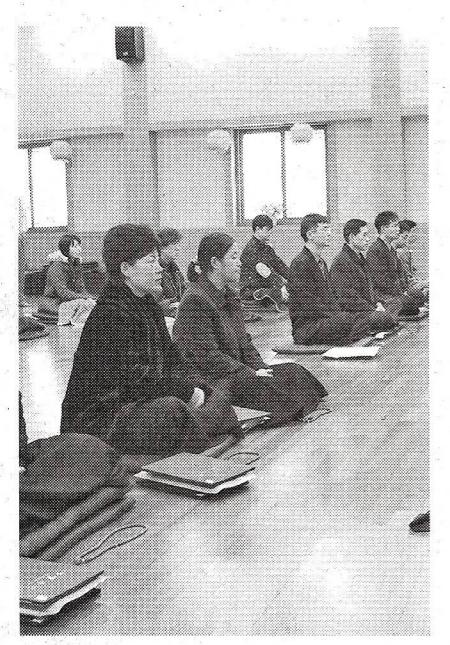
이라고 하면서도, 일반 교도들에 대한 교육은 태만히 하였다. 반면에 외래 종교인들은 신도들을 열심히 교육시켰다. 어린이·청년·노년 등등의 학습반을 만들어서 수시로 교육시켰다. 오죽했으면 “주일학교”라는 말이 생겼겠는가? 이렇게 전 교도들을 학습시킨 결과 그들은 모두가 훌륭한 전도사들이 되었다.

외래 종교에 비해서는 많이 뒤쳐졌지만, 불교계에서도 근래에 다양한 불교대학·종교대학·교육대학 등에서 철학적 교리를 가지고 학교를 세워서 불교

총지종에는 교도에 대한 교육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매주 법회가 있지만 반복적인 진언연송이 법회 시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형태의 설법만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일부 교도들이 타 종단에서 운영하는 불교 강좌에 참석하고 있는 것만 봐도 지금의 설법으로는 교도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지종은 훌륭한 사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엄한 의례가 있는 것도 아니다. 독자적인 신문, 잡지, 혹은 첨단 방송매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교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종지종의 교세의 성장을 결코 바랄 수가 없는 것이다.

신도들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을 할 스승들 개개인이 공부를 해야 한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종단 차원에서도 스승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스승들이 공부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며, 공부할 의욕을 갖도록 해야 한다. 학습할 내용들을 설정해 주어야 하며, 학습 자료들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총지종의 스승들 모두는 맹렬한 학습을 통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스승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총지종의 전 사원에는 불교교수가 서고 교도들이 교리를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종단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김장규 원장의 총지 동의보감



인터넷 중독증 (1)

각 가정의 자녀들이 집에만 들어오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을 하여, 혹 학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닌지, 혹 정서발달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의 경우 인터넷 이용률이 80% 넘

는 것으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용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청소년들이 오직 게임만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이런 경향이 심해 정보, 통신 등의 비교적 건강한 쪽 보다 게임에 몰두하는 유형이 월등히 높습니다. 어디까지가 질병이고 어디까지가 여가활동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인터넷을 하느라 학업이나 교우활동을 소홀히 한다면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인터넷중독을 연구하는 외국의 학자들이 인터넷중독의 기준을 발표한 것입니다. 8가지 문항 중에서 5가지 이상에서 문제가 있으면 인근의 신경정신과를 방문하여 진찰을 받

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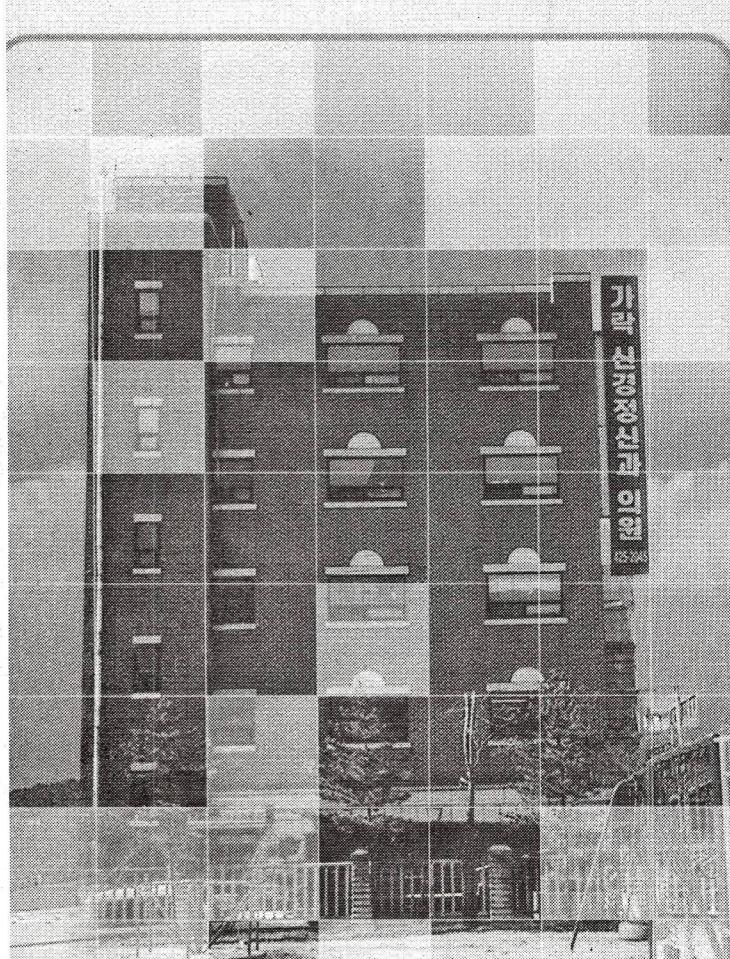
1. 항상 인터넷에 대해 생각하십니까?
2. 처음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접속해야 합니다.
3. 인터넷/통신 사용을 조절하거나 끊거나 줄이기 위해 반복적으로 노력하지만 항상 실패합니다.
4. 인터넷/통신 사용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짜증나는 느낌을 받습니까?
5. 인터넷/통신을 사용하는 시간을 더

늘려야 만족스럽고 계획했던 일을 완수할 수 있습니까?

6. 중요한 인간관계나 직업, 교육, 경력상의 기회가 인터넷/통신 때문에 위협을 받거나 위험에 처한 적이 있습니까?
 7. 자신이 인터넷/통신에 빠져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감추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8. 문제로부터 도피하거나 불쾌한 기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인터넷/통신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 가락신경정신과의원 ☎ 02) 425-2045

가락신경정신과의원

Garak Neuropsychiatric Clinic For The Elderly



강남 최초의 노인치매 전문요양병원

1995년 서울에서 최초로 개원한 치매/증후 전문 요양병원입니다. 2003년부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간호진이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 및 따뜻한 정성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전문진료과목〉

◆ 치매

치매란 과거에 “노망”이라고 부르던 노인성 질환입니다. 중년까지 잘 생활하시다가 노년 이후가 되면 기억력이 저하 길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몰라보는 등 인지기능이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옷을 입지 못하거나 식사도 할 수 없게 되는 뇌의 퇴행성 질환입니다.

◆ 뇌졸증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기능에 갑작스러운 이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의식이 없어지거나 사지의 마비나 감각 상식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여 바깥출입을 못하고 식사나 위생 등 일상생활의 유지에 주변사람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게 됩니다.

◆ 노인성 우울증

노년기에 흔한 신경정신과적 질환의 하나로 우울감, 불안 초조, 불면 및 홍미상실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고통스러운 질환이다. 상담과 약물치료로 잘 치료가 되는 질환이나 본인이나 가족이 노년기 우울증에 대한 인식이 낮아 적절하게 치료되지 못하는 질환이기도 하다.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 www.elderlynp.co.kr

전화상담 02)425-2045 fax : 02)423-1726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85



김장규 가락신경정신과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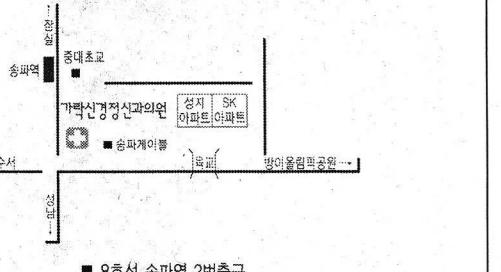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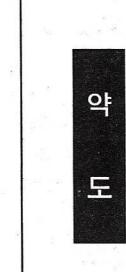
주요경력

- 199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1996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취득
-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료원 정신과과장
- 2000년 전임의과정 수료(서울대학교병원, 노인 정신의학 전공)
- 2001년 석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호주 멜버른대학 연수
- (IMHLP: International Mental Health Leadership Program)
- 2002년 박사학위과정 수료(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용인정신병원 및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정신과과장
- 전국 정신요양시설 평가위원회 위원

평일(토) : 09:00~18:00

일요일 & 공휴일 : 예약진료

응급 / 입원환자 제외



■ 8호선 송파역 2번출구

기획연재 양부만다라 (24)

태장계만다라 ‘관음원(觀音院)’의 피업의보살(被葉衣菩薩) · 백신관자재보살(白身觀自在菩薩)

지난 호에서 관음원의 대길상대명보살(大吉祥大明菩薩)과 적유명보살(寂留明菩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피업의보살(被葉衣菩薩)과 백신관자재보살(白身觀自在菩薩)에 대해 살펴 본다.

피업의보살(被葉衣菩薩)

이 본존(本尊)의 범어명칭(梵語名稱)은 전통적(傳統的)으로 ‘파라샤·바리·(Palasavali, 파라·사樹)의 잎을 걸친 자’라고 전해졌으나, 근래의 연구결과로 ‘파르나(파라·샤)樹의 잎을 걸친 사비리族의 여성’이라는 의미인 ‘파르나·사비리’라고 결론이 났다. 샤비리族은 산악민족으로, 농경문화를 형성한 인도에서는 그 문화를 위협하는 존재로서 크게 무서운 존재였다. 그 때문에 원래는 분노존의 성격이 높았는데, 일본에 전해진 밀교계통에서는 유화한 관음(觀音)의 모습만으로 전해지고 있다. 밀호(密號)는 이행금강(異行金剛)이다.



피업의보살

백신관자재보살(白身觀自在菩薩)

이 백신관자재보살은 말그대로 흰색을 띠고 있는 관자재보살이다. 신체(身體)가 하얀 것은 맑은 대비(大悲)의 공덕(功德)이 모두 갖추어져 있음을 나타낸다. 대비심(大悲心)에 의하여 중생(衆生)을 널리 교화(教化)함으로 인해 밀호(密號)를 보화금강(普化金剛)이라고 한다. 이 보살의 범어(梵語) 명칭(名稱)에서 유추하건데, 복(福)을 불러오는 여신(女神)의 이미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보살의 밀호(密號)는 보화금강(普化金剛)이다. 삼매야행은 개합연화(開合蓮華)이다. 완전히 피어난 연꽃모양이다. 존형(尊形)은 천황색(淺黃色)으로 원손에 개합연화(開合蓮華)를 들고, 오른손은 손바닥을 세우고 세운 팔꿈치를 오른 쪽 무릎에 대고 서 적연화(赤蓮華)에 앉아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붉은 연꽃 대신에 백연화(白蓮華)에 앉아 있는 모습을 취하기도 한다. 또 「불공견색경(不空羈索經)」에는 이 본존(本尊)이 백연화(白蓮華)를 손에 들고 반가부좌(半跏趺坐)로 앉아 있다고 설(說)하고 있으나, 현도만다라(現圖曼茶)



백신관자재보살

피업의보살은 무서운 존재였으나 밀교에서 유화한 관음상 백신관자재보살은 대비심으로 널리 중생을 교화한 보화금강

며, 삼매야행은 미개연화장(未敷蓮華仗)이다. 존형(尊形)은 백육색(白肉色)으로 원손에 견색(絹索), 오른손에 지팡이를 들고, 왼쪽 무릎을 세우고, 적연화(赤蓮華)에 앉아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인상(印相)은 오른손으로 어원인(與願印)을 맺고, 원손에는 견색(絹索)을 들고 있다.

검색은 새와 짐승을 잡는 도구로 일종의 몇을 가리키는데 밀교에서는 이것을 불보살이 중생을 섭취하는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보살의 진언은 ‘옴 하라타사비리 훔 핫다’이다. 뜻은 ‘옴! 염의(葉衣)여! 훔 핫트!’이다.

로)에서는 손에 든 연화(蓮華)가 적연화(赤蓮華)로 되어 있다. 결인의 모습(印相)은 연화합장(蓮華合掌)을 맺고 있다.

이 보살의 진언의 앞에서 공부했던 ‘연화부발생보살(蓮華部發生菩薩)’의 진언(眞言)과 같다. 나막 사만다 보다님 기사타라엔 켄 사비하’이다.

또 달리 이 보살의 진언을 ‘옴 마카한트메 씨베이팀케이 고로고로 사하바’라고 한다. 그 뜻은 ‘옴! 커다란 연화(蓮華)여! 백신(白身)이여! 제거하여 주십시오. 제거하여 주십시오. 사바하!’라는 뜻이다.

(자료정리: 통리원 교정부)

생활속의 밀교

불교수행과 연기(緣起)의 이해

▶ 우주 삼라만상의 존재원리를 불교에서는 연기성(緣起性)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체 존재는 연기(緣起)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연기하고 있는가? 불교에서는 이 연기를 여러 가지 교설로 설명하고 있다. 그 첫째가 업감연기(業感緣起)이다. 세계의 여러 현상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은 중생의 업인(業因)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하는 세계관, 인간관이다. 중생과 세계는 중생들 제각기의 업력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다. 우리들은 각기 뜻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행동으로 나타내게 된다. 즉 신구의 활동, 삼업이라는 활동의 업력에 의하여 모든 결과가 일어난다. 업의 결과로서 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인생과 세계가 천차만별인 것은 바로 지은 업(業)이 다르기 때문이다. 업력(業力)에 의하여 과보를 일어날 때 까지의 그 업력은 어디에 존재해 있는 것일까? 그 설명은 바로 유식불교(唯識佛教)에서 말하는 아뢰야연기에서 찾을 수 있다. 유식이란 ‘오로지 식(識)만이 존재한다’는 사상인데 업력과 그 과보의 존재가 아뢰야식에 있다는 설명이다. 육식(六識) 이외에 아뢰야식의 존재를 인정하고 업력은 종자(種子)로써 아뢰야식 중에 보존되어 있다가 인연을 만나면 다시 현생(現生)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일체현상은 중생 각자의 아뢰야식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무명(無明)이다. 바쁜 지혜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과보이다. 그래서 그것을 망식(忘識)이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무명(無明)과 망식(忘識)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것은 수행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러한 수행을 일러 우리는 전시즉지(轉識得智)라고 부른다. ‘망식(忘識)을 둘러서 지혜를 얻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야 좋은 과보를 받게 된다. 망식에 의한 악업을 더 이상 짓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 연기설이 ‘진여연기설(眞如緣起說)’이다. ‘일체 중생은 모두 성불할 수 있다. 불성(佛性)을 지니고 있다’는 ‘여래장사상(如來藏思想)’에서 중생의 본체(本體)가 진여(眞如)이며 이 진여가 연(緣)에 따라서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현상이 일어난다는 진여연기(眞如緣起)로 이어진다. 그러면 원래부터 불성(佛性)을 갖추고 있는 우주 세계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에 대한 답이 화엄사상(華嚴思想)의 법계연기(法界緣起)이다. 법계의 사물이 천차만

별하나 피처가 서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하나도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이다. 그러므로 만유(萬有)는 모두 동일하다고 본다. 그 구체적인 설명이 십현연기(十界緣起)이다. 현상계 모두가 중중무진(重重無盡)으로 연기해 있다는 설명이다. 이 우주는 인드라망과 같이 중중제망(重重帝網)으로 존재해 있다. 그래서 우주의 만물은 각기 하나와 일체가 서로 연유하여 있는 관계이므로 법계무진연기(法界無盡緣起)라고도 한다. 이 사상을 설명한 것이 앞의 십현연기와 함께 육상원용(六相圓融)을 들 수 있다.

육상(六相)이란 총상(總相) · 별상(別相)과 등상(同相) · 이상(異相), 성상(成相) · 괴상(壞相)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서로 대비되는 세상의 개념, 모습은 서로 원용무애하는 관계에 놓여 있어 하나가 다른 다섯을 포함하면서도 또한 여섯이 그 나름의 모습을 잊지 않음으로써 법계연기가 성립한다는 교설이다.

▶ 밀교에서 서로 연기해 있다는 교설은 ‘육대연기설(六大緣起說)’이다. 지수화풍공식의 여섯가지 요소가 삼라만상을 이루며 이것이 연(緣)하여 일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육대를 체(體)로 하여 삼라만상이 있게 되니, 바로 법신불(法身佛), 비로자나부처님의 세계이다. 이를 교리적으로 형상화한 것이 밀교의 ‘만다라’이며 그 이론은 화엄의 법계연기와 육상원용의 연장선상에 있다. 수많은 불보살은 서로 상관적 인과관계에 있고, 그 모습은 육상원용이다. 나워보면 이축불, 보생불, 아미타불, 불공성취불이요, 하나로 보면 비로자나부처님의 세상이다.

(법경/사무국장 겸 연구원)

진언수행의 길

훔자오인은 ‘훔’이라는 진언종자를 중생 자신의 몸 가운데 포치(包置)하는 것을 말한다. 즉 원손으로 금강권을 하고 마음 속으로는 훔자를 관하면서 오른손을 이마,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가슴, 인후(咽喉)에 인장(印章)하는 ‘삼밀유기법’이다.

이 훔자오인은 모든 진언을 마칠 때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진언염송을 통해 불(佛)과 중생(衆生)이 상응가지하여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훔’은 부처님의 광대한 금강지혜를 의미하는 것으로, ‘훔’ 자를 지송하는 것은 행자자신의 마음이 불신(佛身)에 인주하여 금강견고의 지혜가 영원하기를

바리는 서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훔자오인으로 광대한 진실삼매의 다섯가지 광명이 발현되어서 일체지를 이루고 모든 번뇌망상이 소멸되는 것이다.

‘훔’자의 의미는 『대일경』과 『금강정경』에서, ‘훔자오인’은 『현밀원통성불심요집』에서 설하고 있다.

‘훔’자는 공덕을 나타내는 종자자로서 ‘일체죄의 최파(摧破)’를 뜻하며 모든 교의(敎義)는 이 일자(一字)로써 거둔다고 한다. 『반야이취석』에 ‘훔자는 인(因)의 뜻이고, 인(因)의 뜻은 보리심이 인(因)이 됨을 말함이니, 곧 일체 여래의

보리심이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훔자는 진여 그 자체이며 무수히 많은 공덕이 모두 이것에서 생긴다고 말한다.

또한 『육자대명왕경』에서는 ‘훔자는 갖가지 미묘한 뜻을 출생하는 것이며, 제불, 호신, 성신이 대중을 응호하며 악마사신을 항복받고 재앙을 소멸시킨다’고 하였다.

불교경전의 정화(精華)! 『불교총전』

팔만대장경의 주옥같은 말씀을 이 한 권에…

팔만대장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처님 말씀을 이 한 권에 가려 봤습니다.
『불교총전』한 권으로 불교의 근본교리와 실천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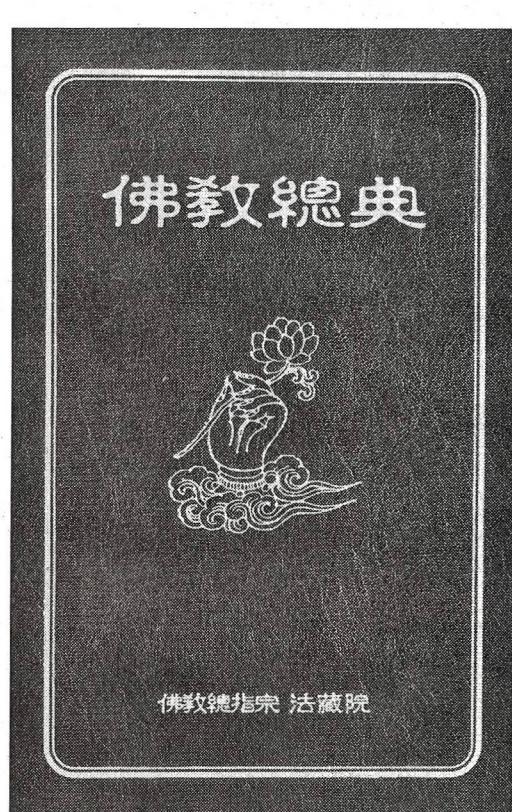
주요내용

교법(敎法)/수도(修道)/업감연기(業感緣起)/

자기애 대한 덕의(德義)/타인에 대한 덕의(德義)/포교와 구경해탈 및 열반

국판 고급양장 금박/700페이지/정가 35,000원

도서출판 불교총지종 Tel : (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총지법문

'종조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

종조 원정 성사께서는 이 땅에 다시 밀교를 꽂 피우게 하셨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밀교의 중흥과 함께 초창기 진각종의 기틀을 다지셨고, 이후에는 의궤(儀軌)와 수법(修法)을 정립한 정통밀교종인 총지종을 창종하셨습니다. 종조님의 숨결과 생전의 가르침을 유고(遺稿)를 통해 다시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원고는 진각종 재직 당시 총인으로 계시면서 쓰신 내용이며, 「종조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원고 가운데 일부입니다. 종조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일원주의(一元主義) 유교(儒教)가 주인(主人)이 되었을 때 종 같이 대우(待遇) 받은 불교(佛教)는 따라서 일원(一元)을 세우자니 의례적(依賴的) 방편(方便)으로 등상(等像)을 주(主)로 하였고 이원주의(二元主義)인 예수교가 주장(主張)이 되어진 이 때에 벗어져 불교는 자주적(自主的)이원(二元)을 세우자니 등상(等像)을 여하고 자기(自己)의 성품(性品)이 부처됨을 깨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2. 사람이 사는 두 길이 있으니 하나는 악(惡)으로서 사는 길이요, 또 하나는 선(善)으로서 사는 길이라 악으로서 사는 사람은 악이 아니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악으로서 살게 되고 선으로서 사는 사람은 선이 아니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자연(自然)히 선으로서 살게 되니 사람은 꼭 선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길 드릴 것입니다.

3. 선에 두 길이 있으니 한 길은 유교(儒教) 방법(方法)으로서 행하는 착함이요 또, 한 길은 불교(佛教) 방편(方便)으로서 행하는 착함이니라.

4. 같은 교(敎)로서 선(善)에 나아가되 유상(有相) 무상주의(無相主義)가 달라서 방편(方便)이

같지 아니하므로 일원(一元) 이원(二元)으로 나누어지게 됨이라. 일원주의(一元主義)는 모 나게 살았던 것이요, 이원주의(二元主義)는 둘다 살려는 것이다.

5. 현실(現失)로 잘 도우는 사람은 이는 사람의 도움 받음이 많고 진리(眞理)로서 잘 도우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의 도움 받음이 많으니라. 이 우주(宇宙)에는 내가 아는 사람은 적고 모르는 사람은 많으니 이는 사람 도움이 크겠느냐 모르는 사람은 도움이 크겠느냐 현실로서 도움이 크겠느냐 진리로서 도움이 크겠느냐 유상(有相) 보시(布施)는 과보(菓報)가 적으로 백천만분(百千万分)의 하나를 받게 되니 더디고 무상(無想) 희사(喜捨)는 과보가 크므로 백천만배(百千万倍)를 받게 되니 속(速)하니라.

6. 심인불교(心印佛教)는 죽어서 극락(極樂)가는 방편(方便)을 많이 세우지 않아도 삼보불교(三寶佛教)가 죽어서 극락 가는 방편으로 교화(敎化)하여 가므로 세상(世上)이 다 알게 됨에 따라 힘쓰지 않는 심인불교에서도 잘 깨닫게 되며 삼보불교는 살아서 안락 되는 방편을 많이 세우지 않아도 심인불교가 살아서 안락 되는 방편으로 교화하여 가므로 세상이 다 알게 됨에 따라 힘쓰지 않는 삼보불교에서도 잘 알게 되니 이와 같이 표면(表面)은 서로 다르나 의면은 유익(有益)함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어느 하나가 없더라도 우주(宇宙) 전체를 포교(布教)하는 대불교(大佛教)가 되지 못하니라.

7. 유(有)에 인(因)을 지어서 무(無)의 과(果)를 받고 무(無)에 인(因)을 지어서 유(有)의 과(果)를 얻느니라. 유상불(有像佛)을 공양(供養)하면 극락이 면 지라 래세(來世)에 더디 과를 받고 무

상불을 깨쳐 알면 극락이 가까운 지라 현세에 곧 과가 있느니라.

8. 사람이 착함을 알아서 칭찬을 많이 받게 되면 죽어서 내세에 복과(福果)를 받아도 적고 사람이 착한 것을 물리서 칭찬(稱讚)을 받지 않으면 곧 살아서 현세에 복과를 받아도 크니라.



무상희사는 과보를 백천만배 받게 된다

인 지어서 과 받는 것은 하늘과 땅, 사람과 부처의 원측

9. 사람이 도우는 것은 이는 이 만이 도우게 됨으로 범위(範圍)가 적고 심인(心印)이 도우는 것은 천지인(天地人) 만물(萬物)이 다 도우게 됨으로 범위가 크고 넓으니라.

10. 인 지어서 과 받는 길이 있으니 알게 되면

한 인을 지으면 선한 과를 받고 효순한 인을 지으면 효순한 과를 받게 되는 것과 같이 털끝 만지도 어긋남이 없느니라.

12. 마음이 흩어지면 귀신(鬼神)이 되고 마음이 모아지면 정신(精神)되니 귀신이 다른 곳에 있지 못하니라.

사람이 먼저 도우고 모르게 되면 심인(心印)이 먼저 도우게 되느니라.

13. 선악(善惡)을 물론(勿論)하고 어두운 어떤 곳에서라도 자기(自己)의 심인(心印)을 모르게 할 수 없느니라.

14. 현시대(現時代) 사람이 도덕(道德)을 몰라서 실행(實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는 것을 주로 하는 철학(哲學)으로 많이 알아도 자기로서 행하지 못하고 가까운 부모 처자 형제 친척에게도 실행(實行) 못하는 것은 현대(現代) 문명인(文明人)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적 철학(哲學)은 물(物)을 사용(使用)하는 데 필요(必要)한 물질문명(物質文明)의 도구(道具)요 실천(實踐)을 주(主)로 하는 철학(哲學)으로 많이 깨닫는데 자기로 실천하고 처자 형제와 친척 타인(他人)에게 까지 실천(實踐)케 하는 것은 현재 심인교도(心印敎徒)로써 많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천 철학은 중생(衆生)을 교화(敎化)하는 데 필요(必要)한 정신문화(精神文化)의 도구(道具)이니라.

15. 삼보불교(三?佛教)를 숭상(崇尚)하는 사찰(寺刹)은 장엄(莊嚴)한 위의(威儀) 앞에서 감히 악을 행할 수 없는 순후(淳厚)한 시대(時代)에 어린이 방편임으로 악과가 더뎌도 악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심인불교는 심인을 깨쳐 인과(因果)를 밝게 알음으로 훌로 어두운 곳에서라도 악을 행할 수 없는 어른 방편임으로 칭찬(稱讚)을 받지 않아도 선도에 나아가느니라.

〈자료제공: 종학연구실〉

이달의 설법문안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

지금부터 2500여 년 전에 석가모니불은 인도의 봄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한 손으로는 하늘을, 다른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영원한 진리의 일성을 터뜨렸습니다.

“천상천하유아독존(天王天下唯我獨尊)”

하늘 위 하늘 아래를 통틀어 나만이 홀로 높다고 하신 것입니다. 유아독존... 어찌면 이것은 지극히 건방진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되새겨 보면 이것 이상 솔직한 말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 '나'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이처럼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절대적인 존재가 '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나'입니다. 어떠한 존재에 대한 사랑도 나를 절대의 자리에 둔 다음 서열을 정합니다. 배우자도, 자식도, 부모도 '나' 다음입니다. 오히려 '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부모에게 연인에게, 부처님께까지도 '나'를 가장 사랑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나' 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해답은 '없다'로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를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올바로 스스로를 깨우치고 살려가야 합니다. 나아가 나를 올바로 살리고

살려가기 위해서는 참된 '나'를 찾아야 하고, 참된 '나'를 찾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밝혀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생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중생의 '나'에 대한 사랑은 곧 나에 대한 집착이며, 집착은 순(順)과 역(逆)을 수반합니다. '나'에게 맞으면 탑하고, '나'에게 맞지 않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척하고 분노합니다. '나'라는 집착의 울타리를 쳐서 스스로 갇히고, 내 사랑의 고무풍선을 불며 불며 풍선이 터질 그날까지 무언가를 잊고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나'의 굴레에 빠져 헤어 날 줄 모르는 자가 중생인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보다 급한 일은 나를 찾는 일이고, 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모든 중생에게 가장 소중한 '나'를 찾도록 가르쳐 주는 종교이고, '나'를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종교입니다. 또한 불교의 자비는 '나'를 올바르게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

도록 이끌어가는 행위입니다.

우리 다같이 이러한 의미에 입각하여 부처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나'를 가장 올바르게 사랑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왜 오셨는가? 모든 개개인의 중생들에게 올바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깨우치기 위해 이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오신 부처님의 기운은 그 순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올바로 스스로를 깨우쳐야

'나'의 애착에서 벗어나 참된 '나'를 찾는 일이 중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하신 것입니다.

탑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불길 속에 갇힌 '나'는 유아독존일 수 없습니다. 적어도 가장 소중한 '나'라면 영원하고 행복하고 자유자재롭고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난 '나'이어야 합니다. 모든 중생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가 '나'의 애착에서 벗어나 참된 '나'를 되찾을 때 그것은 가능해지고,

그 참된 '나'야말로 유아독존인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홀로 가장 높은 '나'를 찾기 위해 석가모니는 모진 수행을 하였고, 그 결과 35세의 나이로 부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환희 속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 기특하다. 모든 중생이 다 이와 같은 지혜와 덕상을 갖추었건만, 망상에 집착하여 스스로 체득하지 못하는구나.

만일 이 망상의 집착만 여원다면 바로 일체지, 자연지, 무사지를 얻게 되는 것 을!”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진아(眞我)를 찾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진아를 찾는 분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에나 한번도 '나'를 떠나지 않았던 '나',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유아독존의 '나'를 깨닫아 부처가 되신 것입니다. 이때에 이로써서야 석가모니는 참으로 자기를 올바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열반의 그날까지 중생들과 함께 하며 참된

'나'를 찾는 방법과 올바르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나'를 찾고, 올바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부처님께서 내리신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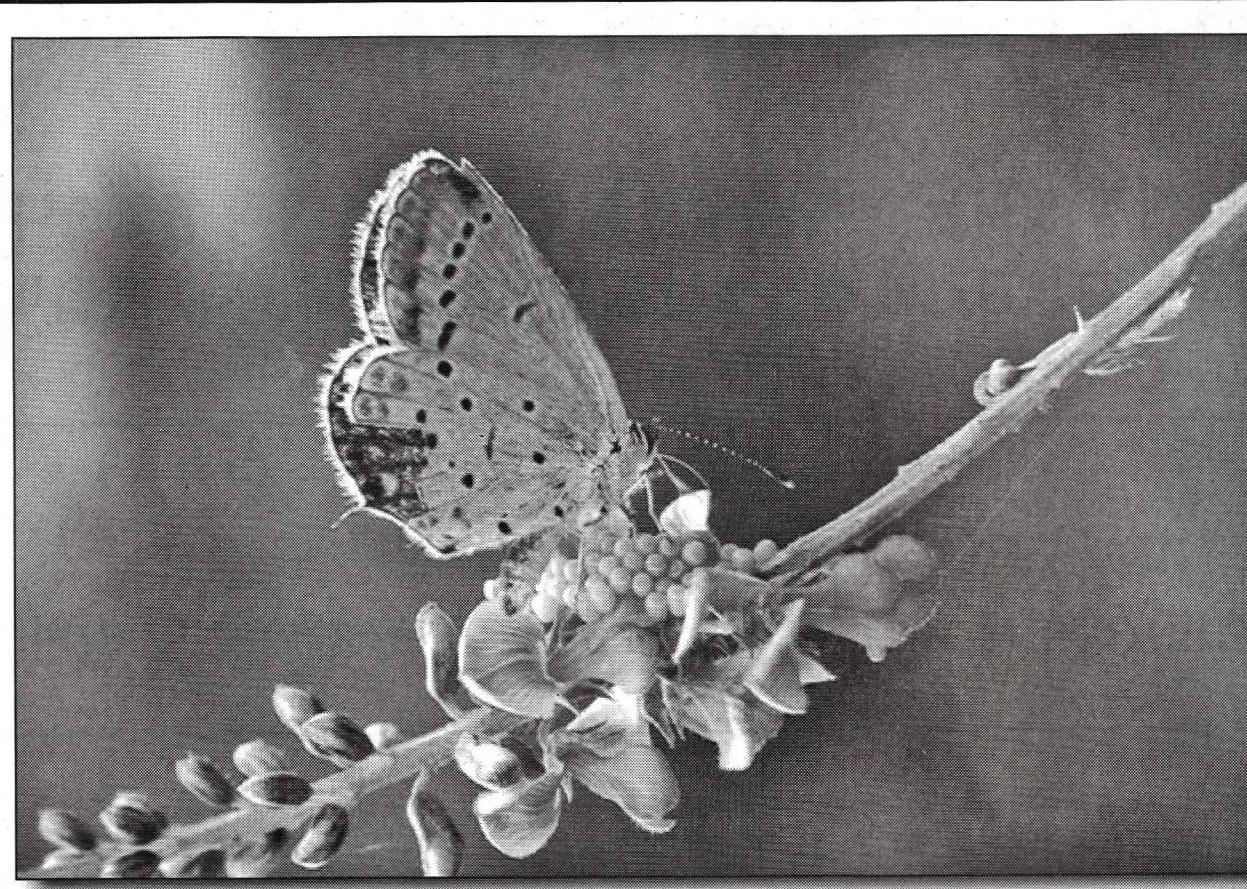
그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없이 많습니다. 중생의 그릇에 따라, 병에 따라 악을 주고 가르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가르침 속에 하나의 핵심이 한결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스스로 돌아보고 살피고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스스로'에 대한 가르침은 석가모니불만이 강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일곱 부처님이 하나같이 말씀하셨다는 〈칠불통계계〉에도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만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있는 유아독존을 찾아 스스로의 진실을 체득하고 스스로 부처가 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열반할 때에 ‘자등명, 법등명에 의지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진정한 참 '나'를 찾아 수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는 결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등을 삼아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수행의 길로 매진해야 합니다. 내가 밝힌 등불이 나의 앞길을 밝혀주듯이, 나 스스로 경계하고 경계할 때 길은 저절로 보이기 마련이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꾸짖으며 참회 정진할 때 대도(大道)의 문(門)은 활짝 열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편집자 주)



한마리 나비의 날개짓으로

지구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킨다는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눈에 띄지 않는

총지종보사의 작은 몸짓이

총지종의 역사를 만들니다.

“불교텔레비전 개국 10주년”

효강 종령예하 축하메시지 전달



전 사장을 비롯해 전직원들이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굳건히 불교TV를 지켜왔습니다.

어려움이 많았던 당시, 저 또한 잠시나마 불교TV의 큰 소임을 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간 임직원의 노고에 깊은 경애를 표합니다. 또한 불교TV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신 모든 불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국 1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불교TV가 언제나 부처님의 가지력이 함께 하오며 무궁한 발전을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영상포교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최첨단 정보화 시대에서 영상을 통한 포교는 시대의 대세이며 불교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영상포교 시대의 지평을 연 불교TV(회장 성우 스님)가 3월 1일 개국 10주년을 맞았다.

총지종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현재에도 이사종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불교TV는 95년 케이블TV 방송을 시작으로 2002년부터는 위성방송까지 병행하고 있어 ‘영상’을 통한 법음의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불교TV개국 10주년을 맞이하여 효강 종령예하는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영상포교로서 온누리에 펼치고 있는 우리 불교TV 가 이제 개국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돌아보면, 참으로 가슴 벅차면서도 한편으로는 눈물겹습니다. 10년 전 이맘 때 불교TV 설립을 추진할 당시, 조계종과 함께 본 종단인 총지종이 앞장섰던 지난날을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많은 불자들과 뜻을 같이 하였던 불교TV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당시 신허스님과 성우스님, 이수덕

가호호가 그대로 법당이요, 부처님 전당이며 바로 불국정토를 펼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교TV가 바로 포교의 전당이고, 중생구제의 최일선입니다.

불교TV의 개국은 2천만 불자의 자존심과 궁지입니다. 우리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뜨거운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원과 모든 불제자들에게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력이 충만하기를 서원합니다. “라고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며 불교TV의 발전을 서원하였다.

불교TV는 아직 미약한 재정 확충 및 방송프로그램의 자체 개발 미흡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개국 10주년을 맞이하여 불교의 홍포에 더욱 매진하고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발奋하고 있다.

총지종 종립 강경중교장, 이대우교감 퇴임식

“창의적인 자기혁신과 계발만이 살길”

총지종 종립 동해중학교 강경중교장과 이대우교감 장년 퇴임식을 2월 19일 동해중 도서관에서 학교운영위원장, 어머니회회장과 교내 교사와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하였다. 강경중교장과 이대우교감은 올해로 정년이 되어 30여년 동안 근무했던 교단을 떠나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강경중교장은 회고사를 통해 “동해중학교는 초창기에 남다른 열정과 의지를 가진 유능한 선생님들이 공부를 잘 시키는 학교로 그 명성이 높았으나 시설과 환경이 열악하여 그 명성이 란다.”고 말했다.

멀어지고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지만 종단과 교육청의 지원으로 환경개선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리며 교육은 눈에 보이는 시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적 환경이 더욱 중요하며 변화와 경쟁의 시대에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자기혁신과 계발을 위해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 학부모들이 힘을 결집하여 노력할 때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앞으로 동해중학교가 국가의 교육이념과 종단의 전학이념을 실려서 더욱더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도 한마디

지난 3일 서울 서초동 정토회관에서 지율스님은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 반대와 환경영향재평가를 요구하며 자신의 생명을 건 단식 100일을 넘기는 위기일발의 상황을 맞으며 모든 국민들의 가슴에 긴장감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대담한 결단으로 지율스님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지율스님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다. 이번 지율스님의 단식을 보며 모든 불자들은 가슴속에 염려와 걱정으로 며칠 동안 밤을 지새우며 ‘재발 스님을 살려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정부에서 요구인을 받아들이고 지율스님이 단식을 풀었을 때 우리들은 하나가 되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 서로 얼싸 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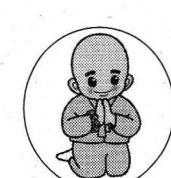
이번 일을 보며 다시 한번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가 있었다. 우리들이 의식하지 못한 채 빌로 몽개져 버린 풀한포기, 벌레 한 마리, 새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부처님께서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에는 불성이 있으며, 이

러한 생물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후자는 지율스님의 단식으로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비판하지만 한번 훼손한 자연은 영원히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닌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줄 유산이란 것을 왜 모르는지… 산업화가 진행되어 가면서 생명의 소중함은 소멸되어 가고 모든 것을 경제적 논리에서 해석하고 평가하는 현대인들에게 자연은 분노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진과 해일, 태풍, 환경오염, 공해, 폭염과 폭풍우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멀리하면 현재는 자신에게 이러한 재앙이 닥치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재앙을 만나게 된다. 그 때 후회한다면 너무 늦어버린 시간일지 모른다. 우리사회는 날로 색막해져 삶의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나와 너’라는 분별심을 버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김영랑/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생명의 소중함을…



연홍종합건설의 전 직원은 창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통하여

고객 최우선과

고품질로 건전한 기업

이미지를 구현하고

미래지향적인

기술개발로 21C 건설문화를 선도하여

사회에 봉사하고자 합니다.

YON HUNG

신행체험 19

“행복할 줄 알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



방원순(대길정)보살
(실보사 신정회 회장)

을 내는 사람과 가난한 살림살이라 할지라도 가족들끼리 오순도순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누가 더 행복할까요? 가진 것은 없을지도라도 행복한 웃음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제가 절에 다니면서 얻은 것은 이러한 진리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할 줄 알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알며,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불법을 만나 공부를 하고 불공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행복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총지종에서 수행하시면서 수행법에 고쳐야 할 점이 있으시다면?

총지종 수행법은 일반 사찰에서 하는 수행법과 많은 점에서 다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음미나반메훔을 염송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행복감에 빠지게 되고, 참회를 통해 하루 하루 일을 참회할 수 있고, 불공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불공이 재미있다고 합니다.

저는 총지종에서 오랫동안 수행하였기 때문에 총지종 법이 마냥 좋지만 각 사원마다 짚은 사람들이 적은 것은 무슨 연유 때문일까요? 앞으로 종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짚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짚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수행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종단과 실보사 교도들에 게 바라는 점은?

우선 한 사람이라도 제도하기 위해 오늘도 용맹정진하시고 계신 스승님들과 보살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의 용맹정진과 서원으로 총지종은 날마다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일마다 새로운 법문으로 참다운 삶의 길을 제시해주고, 부처님의 감로수를 제공하여 주시며, 아버님, 어머님처럼 항상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어렵고 힘들 때면 같이 울고, 즐거울 때면 같이 웃어주시는 정사, 전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실보사의 발전을 위해 용맹정진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를 도와 실보사의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보살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항상 보살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어 건강과 해탈을 이루시기를 지심으로 발원합니다.

종단에 바라는 점은 지금까지 여러 사원에서 보살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노보살님들을 위한 양로원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총지종에서 수십년 동안 수행하신 보살님들은 타의든 자녀들이 다른 종교를 믿었을 때 또는 자녀들이 그분들을 봉양하지 않았을 때 그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분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잠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종단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총지종을 만든 것도 다 그 분들의 용맹정진과 발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도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마련하여 노보살들이 수십년동안 수행해온 이 법을 열반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놓지 않기를 간절하게 서원하는 바입니다.

모든 것은 부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생각하며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행복이 찾아오는 것

불공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각자님은 제가 절에 매일 나오니까 ‘절에 너무 유혹되는 것이 아닌가?’하고 말하곤 하며 은근히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 실보사 교도들의 자랑거리가 있으시다면?

다른 사원도 그렇지만 실보사는 모든 교도들이 가족처럼 생활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서로 서로 도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보사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불공하시는 보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불공덕분인지 보살님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가 마치 부처님처럼 신성스럽고 신비할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보살님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만 많은 보살님들이 도움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불평불만하며 더 많은 돈을 갖기를 원하고, 사소한 일에도 탐심

21C 建設文化의 創造



기업이념(企業理念)

신용을 아는 기업
책임을 아는 기업

고객 최우선과 고품질로 신뢰받는 기업으로서
책임과 능력을 다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기업이 된다.

경영이념(經營理念)

상호 존중 기술 혁신 고객 만족

인간의 창의적 능력을 상호 존중하고 기술 혁신과 경영 합리화로 고객 만족과 가치 창출을 최대화한다.

延興綜合建設(株)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7-8

TEL : 031)856-3301 FAX : 031)856-3303

육자진언 공덕 흐르는 진언수행 정진도량

태화강의 금빛 물줄기가 굽이쳐 흐르고 한국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중공업이 위치하여 산업의 생명력이 용솟음치는 곳!

태화강변을 따라 유유히 흘러나오는 옴나니반메훔의 진언열송소리가 울산시내 곳곳에 메아리치고 무릇 중생들의 번뇌와 아픔을 어루만지며 밀법을 흥포하고 있는 실보사를 찾아가본다.

◇실보사연혁

총기 7년 울산시 신정동에 2층 건물을 임차하여 정경서원당으로 설단불사를 봉행하였고, 총기8년에는 신정동 강남아파트로 불단이설을 하고, 총기12년 6월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동년 11월 완공하여 현공불사를 한 후 현재까지 울산지역 밀법홍보의 중심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실보사에는 초대 정당정사, 총지전수가 이후 송하정사, 주신제전수가 교학하셨으며, 현재에는 혜암정사, 최상관전수가 교학하시고 계신다.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인생은 고해(苦海)라고 말한다. 그래서 중생들은 누구나 행복을 원한다. 그러나 그것이 뜻과 같이 되지 않는다. 왜일까? 그 깨닭은 바로 인과(因果)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로부터 옛 말씀에 삼척동자도 알지만 팔십노인도 실천은 어렵다고 했다. 여러분



는 것이다.

왜냐하면 삼세운회는 인·연·업·과·넷으로 구성한 필연적 법이기 때문이다. 인연과업! 인은 씨앗이요, 연은 곧 씨앗이 뿌려지는 밭이요, 업은 뿌린 씨앗을 가꾸는 해우이이다. 이렇게 인과·연과·업과 모이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영글어지는 것이 과이다. 씨가 좋고 밭이 좋으면 농사를 잘 지었으면 복을 많이 받을 것이고 나쁜 씨를 나쁜 밭에 뿌리고 게으름을 피웠다면 수확이 나쁜 것은 정한 이치이다. 심은대로 거두고 지은대로 받는 것, 자작자득이요, 선인선과요, 악인악과라고 하는 것이다. 아마도 이 도리를 불자라면 누가 모를까만 실천이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옛 말씀에 삼척동자도 알지만 팔십노인도 실천은 어렵다고 했다. 여러분

고 하면서도 못 버리는 것이 중생입니다. 허망한 탐욕으로 매듭지어 고해의 바다에 뛰어들지 말고 바우고 비워서 맷한 매듭풀고 윤회 고통에서 모두 해탈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위하여

수행은 행복한 삶을 위해 닦는 것입니다. 허리 수행이라 하면 고행을 떠올리지 만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모든 이들에게 회향해야 합니다. 부처님도 모든 이들의 행복과 이익을 위한 가르침을 설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들도 또한 진리의 기쁨을 맛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수행이 불교의 전부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선 마음을 맑게 하기 위해 발심을 해야 합니다. 발심은 마치 목수가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주춧돌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발심수행하는 이의 눈동자는 유난히 반짝거립니다. 공부에너지가 모여서 빛나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를 비유하자면 돌보기로 종이에 햇빛을 받아 쪼이면 불이 붙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지혜의 불입니다. 쉬지 않고 너무 심하게 공부하면 이 지혜의 불은 만병의 근원이 됨으로 종도를 잘 지켜서 해야 합니다. 급한 마음을 접고 편안하게 천천히 수행을 하면 마음이 가라앉고 고요해집니다. 고요해진 마음은 맑아지고 맑아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통하는 법입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물질적인 고통이나 정신적 자극을 받지 않아 편안해집니다. 만경창파의 바다를 큰 배타고 여행할 때, 눈 비 내리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때 편안하게 잠도 자고, 밤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책도 읽고 영화도 볼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밖의 온갖 상황에도 전혀 마음에 동요가 없는 것이 바로 수행할 때 선정에 들은 경지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알 수 없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불교는 자신을 알아가는 길입니다. 나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요소도 살펴보고 그 물질요소들이 내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도 느껴보며, 모든 것은 다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을 닦는 방법으로 부처님은 팔정도를 보이셨습니다. 팔정도를 수행하여 육바라밀로 회향할 때 우리는 괴로움도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자신감을 가지고 수행해야 합니다. 지역한 도는 일생생활속에서 얹어지고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31-21
전화 : 052)244-7760**



아니다 누구나 행복이 충만된 삶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원과 자재로움과 밝은 삶을 얻을 수가 있다. 부처님께서는 완벽한 해탈을 성취하셨고 우리들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셨다. 즉 삼세의 인과법을 말씀하셨다.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 자작자득의 진리를 믿고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는 것

이 아니라 기꺼이 빙겼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윤회란 고해에서 벗어나서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오늘은 어제의 연장이요, 내일은 오늘의 상속이듯 전생은 금생의 과거요, 내생은 금생의 미래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어제는 돌아볼 줄 알면서도 전생은 묵살하고, 내일은 기억할 줄 알면서도 내생은 잊고 있는지

그것은 아마도 전생과 내생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일까. 그 이유는 이 순간에 너무 집착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자명한 이상 전생, 금생, 내생의 삼세운회는 반드시 있

고 있다.

절의 뒷간에 가면 입측진언(入廁眞言)·“비우고 또 비우니 큰 기쁨일세 탐진치 삼독도 이와 같이 벼려 한 순간의 허물도 없게 하리라”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먼 버리기 어려우니, 이렇게라도 해야 풀릴 것 같은 중생의 바램이라 여겨집니다. 인간은 한 번 움켜 쥐었다 하면 버리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괴롭다

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조님께서는 현세를 정화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정통밀교 법으로 수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조님께서도 ‘심인(心印)’은 곧 부처님께서 인증하신 마음이니 심인(心印)까지 경을 믿고 그 스승의 말을 믿고 인(因)지어서 과(果)받음을 믿고 행하는데 일체고니 소멸되고 서원대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있어 나(我)에 집착하게 되고 이것이 전도되어 탐·진·치



인터뷰

실보사 혜암 정사, 최상관 전수



혜암 정사



최상관 전수

일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몇 년 전 대구 지하철사고가 있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날 저녁 불공을 마치고 잠시 쉬고 있는데 국광사에서 수행하시는 보살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보살님은 대구 지하철 사고에서 죽을 뻔 했는데 가까스로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대구에서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그날 남편에게 가서 저녁 밥과 반찬을 만들어 주고 설거지까지 하고 경주에 내려오려 했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어제 밥 먹기 좋지 않은 것 같다며 설거지를 하지 말고 빨리 내려가라고 극구 독촉하여 버스를 타고 터미널로 가는데 자신이 탄 버스가 지나차자 마지막으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은 폭발사고가 발생한 줄도 모르고 경주에 내려와 국광사에서 불공을 하고 집에 갔더니 집에서는 폭발사고로 자신이 죽었다고 실종신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 보살님은 스승님께서 월초불공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불공을 하라고 하여 그것을 실천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며 감사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아라고 하면 나란 존재는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일체가 나와 똑같다는 평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발현하면 평등임을 깨닫게 되니 똑같은데 갈등이 일어날 수 없고 분별을 하지 않으니 시기, 질투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조님께서는 탐욕심이 화하여서 화합심이 되게 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지혜로 변화되어 서로가 서로를 돋고 살피, 남을 도우는 것이 나를 도우는 것이요, 나를 돋는 것이 또 남을 돋는 삶이 되어 버립니다. ‘무아(無我)’는 나를 초월하였기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그 ‘공덕’은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는 ‘남’을 도우면 내가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을 칭찬하는데 너무 인색합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덕목은 은혜를 알고 고마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인간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스승과 제자관계, 부부관계, 노사관계, 이웃관계, 등 이 많은 관계는 모두가 서로 사랑해야 할 관계인데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밀교와 인연을 맺은 이후로 지금까지 어떤 경우에도 월초불공을 빠진 적이 없으며, 공식불공 시간에 1분이라도 늦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조장기에 선배스승님들에게 배운 것으로 그 당시 스승님들은 불공시간에 늦거나 하루라도 월초불공을 빼기로 되면 처음부터 다시 불공을 잡아서 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격한 불공이 교회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스승의 최우선 목적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생을 제도하는 방법에 남다른 방식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중생제도라는 말은 깨달으신 부처님도 행하기 힘든 말입니다. 그런데 스승도 중생인데 감히 중생을 ‘제도’라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남이야 무슨 말을 할지라도 저희들은 보살님들이 우리 종단에 보배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항상 함께한다는 정신으로 보살을 위한 정진을 계율리 하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은혜와 사랑이 화합하여 희망찬 불국정토로 살맛나는 대한민국이 건설되기를 기원합니다.

▶거짓과 가식적인 행위, 분별심, 시기와 질투로 얼룩지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불자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기심이 주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종조님께서는 현세를 정화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정통밀교 법으로 수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조님께서도 ‘심인(心印)’은 곧 부처님께서 인증하신 마음이니 심인(心印)까지 경을 믿고 그 스승의 말을 믿고 인(因)지어서 과(果)받음을 믿고 행하는데 일체고니 소멸되고 서원대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있어 나(我)에 집착하게 되고 이것이 전도되어 탐·진·치

▶일선사원에서 교학하시면서 보람된